



2020 후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환경부

CONTENTS



중·고등부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이가현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	--------------	------------	-------------



초등부	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김효린	충북 청주 내곡초등학교
중·고등부	고통받은 동물들의 평생 안식처 동물보호구역	오연수	인천 하늘고등학교
일반부	생태부엌(냉장고와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	서정선	서울 도봉구 도봉동



초등부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박하랑	경남 양산 대운초등학교
	지구를 구하는 십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이채원	대구 용천초등학교
	지구를 구하는 십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장재원	대전 성룡초등학교
중·고등부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진정훈	서울 대성고등학교
	과학을 기다리는 시간	박규현	서울 대성고등학교
	대단한 돼지 에스더	송석호	인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일반부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이효선	경기용인시 영덕동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윤채원	울산 북구 송정동
	나의 비거니즘 만화	박연웅	서울 용산구 문배동



초등부	퀴즈, 미세먼지!	임윤서	인천 박문초등학교
	세상을 바꾼 씨앗	남효재	부산 남문초등학교
	어머 이건 꼭 사야해!	황지효	인천 박문초등학교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	노소정	서울 봉천초등학교
	쓰레기 산의 비밀	염효제	경기 파주 해솔초등학교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이야기	김초희	인천 능내초등학교
	쓰레기가 사라졌다!	김보미	인천 경서초등학교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이한결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문수찬	서울 언북초등학교
중·고등부	빌 게이츠의 화장실	오시현	서울 종로구 청운중학교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박예은	경기 수원 광교고등학교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김나영	인천 남동구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환경호르몬 어떻게 해결할까?	노 윤	광주 남구 대성여자중학교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상식	장세은	광주 남구 대성여자중학교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박유정	경북 경주 근화여자중학교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강아현	대전 유성구 지족중학교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전명옥	경남 창원 안남중학교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배지윤	부산 동래구 사직여자중학교
일반부	쓰레기책	김형욱	부산 남구 대연동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가게에 갈까?	이영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나의 비거니즘 만화	박다영	경북 김천시 신음동
	낭비 사회를 넘어서	김동근	서울 강동구 암사동
	2050 거주불능 지구	이은진	대구 북구 동천동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김진희	경기 용인시 상현동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	박지희	경기안성시 공도읍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정미용	서울 양천구 목동
	바닷마을 인문학	김정현	충북 청주시 용암동





그 죽음에 무너지지 않기를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중·고등부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 이가현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보니 여름 내내 귀가 따갑게 울던 매미소리가 언제부터인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등푼길 아파트 여기저기엔 하나 둘 몸을 뒤집은 채 나뭇구는 매미 사체가 부쩍 눈에 많이 띄니다.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지난 여름 공부를 방해한 지독한 소란의 주범이라 밉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이별’과 ‘죽음’을 마주하는 기분은 역시 애틋함이 앞섭니다.

하물며 생명력이 스스로 소진된 죽음도 이러하거나와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그리고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책 ‘천년만년 살 것 같지?’는 지구 역사상 ‘최악의 포식자’로 불리는 우리 인류가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하는 과정에 희생되어 멸종이 임박한 동·식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여운 수달이 있고, 멋있는 비행을 자랑하는 황조롱이가 포함되며, 남한강 강변에서 수줍게 연보랏빛 꽃을 피우는 단양쑥부쟁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발적인 책 제목은 이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같이 잘 살자’는 탄원서이자 항의 글이며, 이미 쇠잔한 귀신고래 같은 경우는 비장한 ‘유서’의 의미까지 가진 까닭에서 비롯됩니다.

책은 멸종의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제목으로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인간의 무차별적 횡포를 상세히 고발하면서, 각 편의 마지막에는 촌철살인의 문장으로 이들의 호소를 요약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미 일본에선 멸종된 수달이 아직 우리나라에 생존해있음을 알리는 장의 마지막 문장을 “아직 우리에게겐 시간이 남아 있다”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자칫 책을 읽다가 논점을 잃어버렸다 해도 핵심문장만 붙잡고 있으면 소주제를 선연히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책이 가진 장점 중 하나입니다.

20여 종의 동·식물이 등장하고, 각 편 하나하나가 전하는 메시지의 울림이 제각기 다르지만 책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는 생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잔인함을 상징하는 사육곰의 실태를 고발할 땐 분노로, 로드 킬로 수만 개의 알과 함께 무참히 사라진 납작해진 땀방울의 모습 앞에선 안타까움으로, ‘산천어 축제’란 미명하에 정작 주인공 산천어가 대량 납획되는 희한한 강원도의 축제엔 황당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종 고개를 주억거리게 하는 내용과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류의 소위 생태교란종으로 분류된 이들의 항의도 경청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식용으로, 관상용으로 무분별하게 수입한 장본인이 누군데, 이제 와서 우리들에게 그런 수치스런 이름표를 붙이냐고요?

생태교란종은 바로 인간 당신들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식 측면에서도 산에 갈 땐 화장품, 향수를 가능하면 삼가고, 숲에 들어선 말소리를 줄이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책은 전하면서, ‘천천히 다가가 가만히 머물다 조용히 나가기’를 실천할 것을 재촉합니다.

로드 킬 발견 시 신고 전화번호 120, 고층 아파트 유리창에 반사된 산을 실제로 착각해 새가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ird save’ 스티커도 알게 되었습니다. 21층에 사시기에 가끔 에어컨 실외기에 이름 모를 새가 와서 쉼다고 자랑하는 외삼촌에게 선사해야겠습니다.

책은 지구 전 영역에서, 동·식물·미생물 구별 없이 전 방위적으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우리가 가진 안이함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꿈틀댁니다.

어려운 전문용어 없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부를 쉽게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책의 반향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녹여진 작가의 진정성과 문장력에 힘입은 바 큼니다.

특히 썩지 않고 온 세계를 휘저으며 편리함 뒤에 감추진 반대급부를 톡톡히 알리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전을 떠도는 귀신’으로 표현한 대목은 압권이었습니다.

독서의 긍정적 기능은 실천에 있을 테지요!

1회용품 쓰지 않기, 학교 급식 때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은 평소 의식하며 동참하고 있었는데, 환경파괴의 속도가 한층 강도 높은 보전활동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낭비하던 종이 출력물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낭비를 줄이고, PC 화면은 ‘그린터치’를 깔아 전력을 절감하며,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휴대하는 것으로 실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사라진 꿀벌 한 마리를 살리고, 말라가는 구상나무 가지에 파란 새순이 돌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간이 손대기 전에 자연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생태계를 함께 하는 이웃들에 대한 인류의 태도는 박정함을 넘어 무례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기에 이웃이 살 수 없는 지구는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류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인간을 뜻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무색할 정도로요. 우리는 이제 ‘공존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감수성을 의식적으로라도 키워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론 창구 ‘국민 생각함’에 ‘매미 소음’이 안전으로 올라 그대로 뒤야 하는지 아니면 제거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이 있었고, 결론은 65% : 35%로 다소 소음이 있더라도 참고 지내자란 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발견합니다. 시골집 감나무에 할머니가 남긴 ‘까치밥’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거친 보도블록에 등을 뒤로하고 누운 매미의 모습에 자꾸 눈이 갑니다. 차가운 시멘트는 땅속 7년의 인고를 고스란히 참아낸 매미의 안식처로 웬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주춤거리며 손수건으로 매미를 잡고 화단 안으로 살며시 내려줍니다.

1년 후 죽은 매미의 후대들은 짹짹한 울음과 함께 아마 다시 찾아오겠지요. 그날은 부끄러움 없이 여름의 전령들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꾸고 돌보는 우리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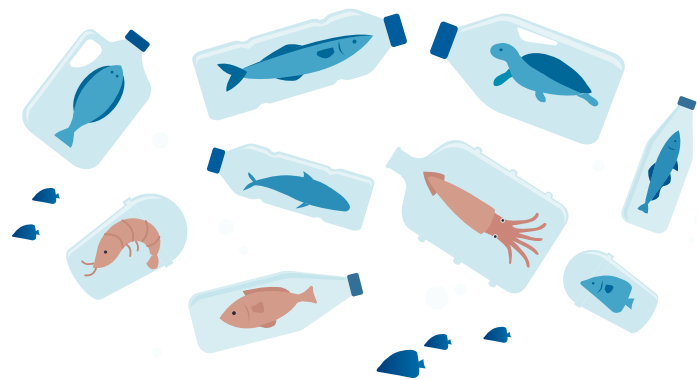
[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초등부 충북 청주 내곡초등학교 김효린

우리 가족은 저녁마다 산책을 나가서 나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엄마, 아빠는 쓰레기를 버리신다. 분리배출을 하는데 쌓여있는 플라스틱 통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그중에서도 음료수통이나 생수통이 많았다. 산책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낮에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을 읽었다. 책 표지가 눈길을 끌었다. 아까 분리배출을 하면서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요즘은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플라스틱 칫솔로 이를 닦고, 플라스틱의 종류로 만든 옷을 입고, 플라스틱 팩에 든 우유를 마시고 학교로 간다. 우리가 쓰는 자도 필통도 모두 플라스틱이다. 쉬는 시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공기놀이를 하고 체육시간에는 플라스틱 공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플라스틱을 만나고 자기 전에 양치질을 할 때도 또 플라스틱 칫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우와! 생각해 보니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서 많은 것을 차지했다. 플라스틱이란 말에는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가볍고 단단하고 다양한 색깔을 지닌 제품으로 만들 수 있어서 처음 발명되고 나서 놀라운 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바다는 점점 오염되고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도 만든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썩어서 없어지는 데에는 450년이 걸린다. 2050년에는 11억 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인다고 과학자들은 예상한다. 또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가 안 되는 조각인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깊은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이 플랑크톤으로 착각해서 먹게 된다. 큰 바다 생물이 작은 바다 생물을 잡아먹고,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게 되면 결국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서 다시 사람에게 오게 된다. 으악!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니. 그럼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는 어렵고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의 전쟁 중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다에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계속 키우고 우리 식탁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와 우리 몸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많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멈추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얼마 전에 온라인 수업에서 바닷속의 쓰레기를 줍는 부부의 동영상을 보았다. 그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플라스틱 줄이기 표를 만들고 실천하기로 했다.

첫째, 일회용품을 안 쓴다. 비닐, 빨대, 일회용 칫솔 등을 안 쓴다.

둘째, 플라스틱 없는 부엌을 만든다. 장바구니를 챙기고 비닐 포장 없이 고기, 야채를 통에 담아온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한다.

셋째, 플라스틱이 없는 욕실을 만든다. 플라스틱 통이 없는 고체 샴푸를 쓰고, 대나무로 된 칫솔을 쓴다. 리필만 사서 채워 쓴다. 물티슈를 안 쓴다.

넷째, 우리집을 플라스틱 재활용 미술관으로 만들 거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화분, 어항, 액자 만들기, 플라스틱 볼로 모빌을 만들 거다. 내가 어른이 되면, 바다 쓰레기 청소 로봇이 발명되면 좋겠다. 나는 작은 실천이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아라

[고통받은 동물들의 평생 안식처 동물보호구역]

중·고등부 인천 하늘고등학교 오연수

우리 집 앞에 있는 백운산을 등반하다가 우연히 어미와 새끼로 추정되는 '야생 고라니'를 보게 되었다. 새끼가 빠르게 달려가는 어미에게 천천히 가라고 하는 듯 우는데 처음 들어보는 고라니 울음소리에 터져 나오는 놀라움을 참느라 애썼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한 나에게 고라니는 한 번 더 볼 기회를 주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동안 나는 산을 단지 등산하는 곳으로만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등반했는데, 고라니 가족과 마주친 후로는 달라졌다. 산이 나와 같이 살아 있고 야생동물들과 공존하는 곳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내가 산에서 만났던 선한 눈망울의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망치는 유해 동물이라 낙인찍혀 함부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과 함께 야생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통받은 동물들의 평생 안식처 동물 보호 구역」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인간에게 학대받고 착취당한 동물에 대해 몽클한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며 제일 충격받았던 부분은 인도의 춤추는 곰으로 알려진 '느림보 곰'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은 느림보 곰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돈벌이에 이용하는 일도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과거에는 많은 곰들이 코에 관통한 줄로 고통스럽게 조종당하며 관광객들을 위해 춤을 춰야 했다. 동물 보호 단체에 의해 구조된 곰의 수만 해도 600여 마리나 된다고 한다. 동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돈벌이만을 위해 동물을 장난감처럼 이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인도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동물 보호 구역이 고통스럽게 살다 구조된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물과 공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계 곳곳에 동물 보호 구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아프고 다친 동물에 대한 한 사람의 애정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 보호 구역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놀랐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구출한 동물을 일시적으로 보살피는 시설이 아니라 평생을 해결해 줄 동물 보호 구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동물의 아픔을 모두가 느낄 수 있고 동물의 기쁨을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머릿속에 그려본다.

책을 읽으며 동물은 동물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제인 구달의 말이 깊게 와닿았다. 동물과 인류가 공생하는 길을 만드는 첫 단추는 작은 실천일 것이다.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육곰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는 곰의 고기나 부속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쓸개나 쓸개즙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은 합법화되어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곰’이라고 하면 도축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개한 영상 속에서 본 반달가슴곰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한없이 슬퍼 보였다.

우선 나는 사육곰 구출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관련된 뉴스를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도 알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보호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세미나에 참여해 보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아직도 등산하다가 만난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고라니가 멸종되어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멸종위기종인데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고라니의 문제도 동물 보호 구역이라는 공간 조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에 대한 한 사람의 애정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 보호 구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동물들의 무표정한 삶 속에서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 힘을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다.



냉장고 비우기

[생태부엌(냉장고와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

일반부 서울 도봉구 도봉동 서정선

특이한 제목에 이끌려 [생태부엌]을 읽은 지는 꽤 오래전이었다. 기나긴 출퇴근길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읽을거리를 찾아 큰 맘 먹고 서점에 갔을 때였다. 신간도서 코너에서 과일, 채소를 배경으로 [생태부엌]이라 적힌 책이 눈에 들어왔다. 요리책인가 싶어 잠시 살펴보니 요리책치고는 글밥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제목을 살펴보았다. 큰 제목 옆에 조그맣게 “냉장고와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라고 적힌 것이 보였다. 뭔가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란 기대감이 들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니 역시나 단순한 요리책은 아니었다. 물론 요리에 대한 이야기와 조리법도 나와 있었지만, 요리 소개를 포함해 부부의 삶의 이야기 등 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생태적 순환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부부는 이러한 생태적 순환의 삶의 중심에 “생태부엌”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었다. 처음에 예상했던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라기보다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용기 있는 부부의 도전하는 라이프였다.

그와 비교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무절제한 생활과 환경에 무심했던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라고 말하기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하지만 당장 일상생활 속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퇴비 화장실로 개량하고, 아스팔트를 텃밭으로 만들고, 작물을 재배하여 생태부엌을 구현할 엄두와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막연하게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먹는 것이든 버리는 것이든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이 책을 읽게 된 때는 그러한 다짐도 많이 퇴색된 후였다. 책장 한 칸에 얌전히 꽂혀 있던 [생태부엌]을 다시 펼쳐든 것은 우연히 우수환경도서 목록에서 익숙한 제목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가운 마음에 책을 꺼내 다시 보다 보니 처음 책을 읽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책만 열심히 보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느낀 게 많고 배운 게 많다고 해도 행동의 변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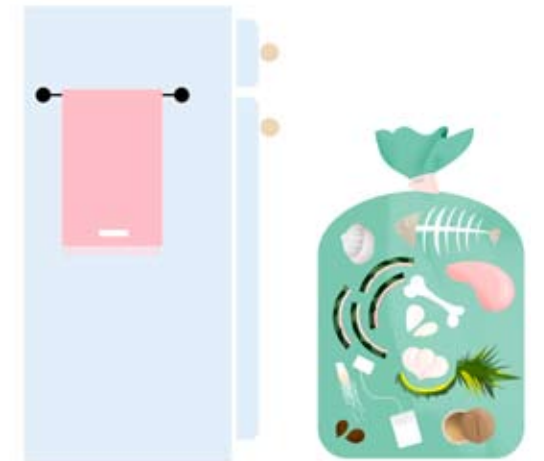
수반되지 않으면 모르고 있었을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처음에 놓쳐버린 소중한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온 거라 감사히 여기고,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의 생태적 순환의 삶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까지는 좋지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조그마한 빌라에 살고 있는 나는 ‘켈러’를 만들 공간이 없고, 고온다습한 서울에 살고 있어서 켈러가 있어도 무더운 여름을 나기는 무리일 것 같았다. 고심 끝에 ‘매주 장을 보고 매일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현재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만으로 음식을 해 먹고, 냉장고가 비워질 때까지는 장을 보지 않는 일명 ‘냉장고 비우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였다.

냉장고 안 곳곳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음식이 있었다. 쓰다 남은 양파와 당근, 대파 조각을 시작으로 세일을 한다고 왕창 산 스파게티 재료, 비닐봉지 채 담겨 브로콜리,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카레와 가지볶음, 일 년에 한두 번 해먹는 월남쌈, 쌀국수에 빠지면 서운한 소스들까지 냉장실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냉동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 산 에어 프라이어를 써보기 싶어 구입한 대용량 냉동식품들, 언제 샀는지 가물가물한 각종 고기들, 다진 마늘 얼린 것, 누군가가 선물로 준 떡 등 냉동실 안 음식들은 서로 몸을 꼭 맞닿아 빈틈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꽂꽂 얼어있었다.

냉장고 비우기에 앞서 우선 냉장고 정리를 해보기로 했다. 짝 들어찬 음식들 중 특히 채소와 과일들은 수분이 빠져나가 형태가 찌글찌글해지고 탄력을 잃어 물컹물컹해지고 있었다. 조금 과장해서 냉장상태로 천천히 썩어가고 있는 거 같았다. 그래서 책에서 본 채소 피클을 만들어 보았다. 깨끗이 소독한 유리병에 향신료, 채소, 식초물을 넣고 밀봉하는 것인데 버리는 것보다는 나았지만 이미 시들시들한 채소를 피클로 만드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았다. 다른 음식들 중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나 상한 것은 골라서 버렸다. 도대체 이런 건 언제 샀나 싶은 것들도 많았기에 매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정리하니 빼곡하게 채워져서 뒤쪽에 어떤 게 있는지 보이지 않았던 냉장고가 드디어 안쪽의 주황색 불빛이 보이게 되었다.

나머지 음식들은 유통기간이 짧은 것부터 꾸준히 먹기 시작했다. 이 냉장고 비우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낀 것은 여느 때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편중되게 식탁을 차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을 볼 때는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평소 잘 먹지 않는 것들을 사들인다. 이렇게 냉장고는 먹지 않는 것들로 채워지고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식재료를 비워야 하는 이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재료로 요리해야 했기에 나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였다. 장을 안 보니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 부메랑처럼 나에게도 좋은 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일주일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냉장고 비우기’는 보름이 넘어서야 끝났다. 끝나고 나니 새삼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넓었나 싶었다. 칸칸이 비워진 냉장고 선반을 청소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그동안 음식을 너무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반드시 장보기 전에 우선 냉장고 정리를 해서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장을 보러 가야겠다.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냉장고에 있는데 또 샀던 게 너무 많았다. 그리고 세일한다고 한 번에 많이 사는 것도 자제해야겠다. 한두 번 먹으면 질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남은 음식은 그대로 냉장고에 방치되기 때문에 세일해서 싸게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란 생각이 들었다.

사실 ‘냉장고 비우기’는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고, 수시로 냉장고 정리를 해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린다. 직장 생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냉장고 비우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각자 바빠 일상생활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중국에는 우리 자신도 건강해질 것이다. 마침내 환한 빛을 되찾은 우리 집 냉장고처럼.





신비한 식물의 세계

[선인장은 어떻게 식물원에 왔을까?]

초등부 경남 양산대운초등학교 박하랑

식물은 동물만큼이나 흔한 생물이다. 우리는 식물의 특성이나 일부 부위들을 활용해 많은 것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보고 1학기에 배운 식물 단원이 생각났다. 배운 대로 광합성, 잎의 기공, 꽃가루받이 같은 식물 용어들을 보자 반갑기도 했다. 내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식물의 '작공 동물들'이었다. 식물의 삶에 도움을 주는 동물하면 흔히 벌이나 나비를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파리도 식물의 작공이라니, 병균이나 옮기는 해충인 줄 알았는데 괜히 미안해졌다.

동물이 식물과 다른 점은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성별의 존재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내 생각을 뒤엎는 식물이 있었다. 바로 은행나무다. 은행나무는 동물처럼 암, 수나무가 있다. 성별이 있는 것도 놀라운데 번식 방법은 더 신기하다. 수나무에서 정자가 나와 번식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역시 동물만이 가진 특성인 줄 알았다. 성별과 번식 방법까지 동물과 비슷하다니! 그 저 지나치던 가로수로만 알던 은행나무를 다시 보게 된다. 알면 알수록 식물은 신비로운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 식물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물들의 먹이로 희생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색깔과 향, 맛으로 동물이 먹게끔 유도하는 식물도 있다. 동물에게 먹힌 뒤 소화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열매의 양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참나무들은 열매인 도토리를 너무 많이 만들면 포식 동물들의 번식률이 높아져 다음 해 동물들이 굶주릴 것을 예상한다. 그래서 열매의 양을 조절한다고 한다. 참나무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양을 조절하는 밀고 당기기의 고수들 같다. 참나무의 예를 봤듯이 식물들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다육 식물을 키워보라고 하셨다. 다육 식물이란 단어가 생소했던 나는 꽃집에 가서 '라울'이라는 다육 식물을 데려왔었다. 꽃집에 있는 다육 식물들은 크기가 작고 모양이 특이해서 계량된 반려 식물의 일종인 줄 알았다. 다육 식물, 다육질의 줄기나 잎을 가진 식물. 정확한 뜻을 알고 나니 계량 식물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나는 충격이 크기도 했지만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리고 보니 꽃집에서 봤던 다육 식물들은 모두

굵은 줄기와 잎을 가지고 있었다. 사막같이 건조한 곳에 사니 물을 저장하기 위해 잎과 줄기가 발달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다육 식물을 다시 알게 되어 다행이다.

식물과 자연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 팜유는 음식과 화장품에 폭넓게 쓰인다. 하지만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면적의 숲을 불태워야 한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오랑우탄은 총에 맞아 죽고, 어린 오랑우탄은 서커스나 동물원으로 팔려가 동물 학대를 당한다.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바나나와 커피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농약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노동자에게 노력에 비해 적은 임금을 쥐 인권침해를 한다. 전에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질을 피할 수 없었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었다. 사회 시간에 모두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도 내 인권이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것이다. 식물 이야기에서 인권 이야기까지 오다니, 식물과 우리 생활은 정말 밀접하다는 걸 느꼈다. 식물의 경이로움을 알려준 작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책을 읽으며 이 책에는 단순히 식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동물들, 지나친 식물 교배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 등을 알려주어서 더욱 재밌게 다가왔다.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식물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식물보다는 동물에 더 관심이 많았다. 동물이 식물보다 더 활발해서 좋아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식물에도 관심이 생겼다. 종류도 동물만큼 다양하고 동물과 협력하며 매일매일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웬지 친한 친구가 된 기분도 파릇파릇 생겨났다. 마지막 장을 덮으니 주위 식물들이 달라 보였다. 양분을 저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드는 자연의 일부.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새롭다. 식물들이 전과 다르게 위대해 보인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어야겠다. 나도 자연의 일부로써 다른 자연의 일부들을 아껴주고 싶다.





나도 그레타 툰베리처럼

[지구를 구하는 십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초등부 대구 용천초등학교 이채원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 나이였지만 기후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레타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문제를 혼자만 생각한다면 참 답답했을 것 같다. 그래서 점차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족에게라도 환경문제를 말하고 함께 실천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나만 혼자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힘이 되고 조금이라도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레타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켰다. 자기가 비행기를 타면 지구를 오염시킴으로 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는데 그레타가 유명해지자 다른 대륙에서도 초청했지만, 그레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지구가 오염된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구 오염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조금 부끄럽다. 내가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환경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책임지고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레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학교 파업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그레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그레타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날도 학교 파업을 했다. 친구들과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레타가 한 말 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입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저 멈추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위해 환경문제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린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의 미래이고 나의 미래이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환경과 기후 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와 지구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

어른들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레타처럼 우리도 노력하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큰일로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숲 속 친구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만들고 우리가 쉽게 사용한 플라스틱들이 바다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다.

내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학교 파업은 할 수 없지만, 그저 말로만 하지 않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함께 실천해야겠다. 나는 문구점에 가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귀엽거나 예쁜 물건들을 자주 샀었는데 그 물건들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쓸모없어 쓰레기가 되었을 때 지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나도 물건을 살 때 될 수 있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사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아빠가 한 번씩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이 나오게 하려고 물을 틀어 놓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을 끄지 않을 때가 많은데 나라도 가서 물을 잠그고 불을 꺼야겠다. 불을 끄지 않고 놔두면 화석연료 때문에 지구 온난화도 심해질 수 있고 물도 아껴 써야 한다. 한 번씩 옥조목욕이 재미있어서 한 적이 많은데 따뜻한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오랫동안 물을 데우면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가 끄씩만 해야겠다.

그리고 여행 가거나 어디 갈 때 일회용품을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일회용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한 번밖에 못 사용하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써야겠다. 우리 아빠는 한 번씩 냉장고 문을 자꾸만 열어놓고 한참 동안 서 있을 때가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놓아도 냉장고 밖에 있던 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가 바람을 더 세게 불게 해서 화석연료와 전기가 낭비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라고 아빠에게 꼭 말해야겠다. 또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북에 잘못 그린 경우에 쓰던 종이를 버리고 다른 종이를 사용했었다. 종이는 나무에서 오는데 내가 자꾸만 종이를 낭비한다면 나무는 더 많이 베어지고 숲이 파괴되어 숲 속 동물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부터라도 종이 한 장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부터 당장 실천하면 우리의 미래도 아름다워지고 지구는 아프지 않고 초록빛이 점차 되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큰일을 하는 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지구를구하는 십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초등부 대전 성룡초등학교 장재원

책표지의 그레타 툰베리는 노란 점퍼를 입고 ‘큰일을 하는 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라는 뜻을 들고 있다. 나는 책을 읽기도 전에 이 말을 보며 두근거렸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십대 환경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엄마께서 예전에 각 나라의 대표가 모인 회의에서 그레타가 연설하는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그때는 그레타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엄마께서는 그레타가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환경을 지키자는 연설을 하는데 여기까지 초대된 데는 그동안 그레타가 지구 환경을 위해 큰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방송에서 그레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게 되어 책을 읽게 되었다.

그레타는 어린 나이에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오랜 기간 걱정과 슬픔 속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발생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이로 인해 여러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얼마 후 지구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레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학교 파업을 선언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국회 앞으로 가서 자신의 생각을 보여줬다.

나는 평범한 초등학교 2학년 아홉 살 학생이다. 나는 환경 운동은 어른들이 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레타 툰베리는 어린 나이에 스스로 학교 파업을 시작하고 어른들을 향해 당장 행동하라고 말했다. 툰베리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오염에 대해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려주었고 우리가 노력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나이가 어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리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실 과학을 좋아하고 로봇공학자가 꿈이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환경이 나빠진 건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다. 사람들이 편리해지려고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자동차를 타고, 공장을 만들었다. 우

리가 쉽게 사용하는 비닐은 썩어 분해되는 데 100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편리해졌지만 지구에 함께 사는 다른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건 지구를 나눠 쓰는 북극곰, 바다 생물에게 아주 미안한 일이다. 나는 여러 사람을 위한 과학을 더 발달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과학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과학을 연구할 것이다. 재활용이 잘 되게 하는 과학,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자동차와 공장,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레타처럼 지금 당장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물 절약하기와 여름에 선풍기 틀기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선풍기 30대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가능하면 쓰지 않을 거고, 분리배출을 바르게 실천할 것이다. 우리 아파트는 수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웃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쓰레기를 보면 너무나 많다. 우리 아파트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나라 쓰레기가 모이면 얼마나 많을까? 사실 나 혼자 이런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지구 환경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지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엄마께서는 나와 동생에게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해주신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고 놀다가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으셨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모래로 물질을 만들어 재미있는 마을을 만드셨다고 한다. 눈이 오는 날은 동네 아이들이 모여 눈도 먹고 눈 위에 누워 뒹굴기도 하고 사람 자국도 만드셨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염이 된 비를 한 방울이라도 맞을까 봐 걱정해야 하는 우리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다. 이제는 기후 변화로 겨울에 눈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신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젠 우리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지구를 살리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나와 친구들에게 한 마디를 외치고 싶다. 큰일을 하는 데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과 실천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중·고등부 서울 대성고등학교 **진정훈**

“오늘까지 장마가 무려 49일 동안 이어지면서 최장 장마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뉴스 때마다 전무후무한 장마 소식과 쏟아지는 빗소리를 밤낮으로 들으며 여름 방학을 다 보냈다. 장마로 시작해서 장마로 끝난 여름 방학은 내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의 환경과 기후 변화에 깊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무엇이 이렇게 지구를 난폭하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었을까?’

나는 그 무엇이 바로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의를 우선시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하나의 문화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은 가치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처음부터 자연을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훼손만 해왔을까?

문득, 내가 사는 갈현동에 유독 많이 자라는 감나무가 생각났다. 집집마다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때가 되면 어머니와 나는 바구니를 들고 잘 익은 감을 따곤 했다. 나로서는 빨갛게 익어 보이는 감들은 모두 따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나를 말리셨다. 이유를 알고 보니 한겨울에 새들이 쪼아먹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옛 선인들의 ‘까치밥’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인간으로서 자연 속 생명체를 배려하며 함께 공존해가는 가치의 중요성은 물론 우리 선인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명체를 귀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한 ‘까치밥 정신’이 하나뿐인 지구를 물려받아 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백 번의 다짐보다는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 의지에서 나는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데 적절한 안내서가 될 만한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이라는 책을 선택했다.

이 책은 환경문제에 관한 실태와 기본 지식을 알려주고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준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요즘 환경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주범인 플라스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다회용 물건들과 초식동물들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만든 재생종이 그리고 자동차 매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용 자전거 시스템 등이 있다.

나는 공용 자전거 분야에 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그 이유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접한 공용 자전거가 내게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동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원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이 되어왔던 내연기관 가솔린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공용 자전거 ‘유니콘 바이크’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세대의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와 1인 이동 수단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식문화뿐만 아니라 거주와 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이동 수단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내가 즐겨 타는 ‘유니콘 바이크’는 다른 일반 공용 자전거에 비해 전기모터가 있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경사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은 양의 힘으로도 전기 에너지로 편리하게 언덕을 오를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리고 따로 지정된 자전거 배치대가 없이 아무 곳이나 세워 두어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기존의 ‘따릉이’라는 공용 자전거는 지정된 배치대에 꼭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유니콘 바이크는 우리 집 앞에 세워둬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유니콘 바이크라는 앱을 통해서 자전거의 위치를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위치 확인 후 바코드를 찍고 바로 타면 된다. 이렇듯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지속 가능케 하려면 공용 자전거와 같은 ‘공유’의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한 종이다. 코끼리의 배설물과 아프리카 물소 그리고 말의 배설물을 이용해 종이를 만든다고 한다. 이러한 초식동물의 배설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어서 종이를 만들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해 종이를 만들면 나무를 베어 만드는 일이 거의 없어서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얼마 전 생일 때 친구로부터 특별한 티셔츠를 선물 받았다. 멕시코의 공정거래 무역업체에서 제작한 파타고니아 티셔츠였다. 티셔츠 상표에는 4.8개의 플라스틱 병과 26 파운드의 자투리 면을 사용함으로써 한 개의 티셔츠를 제작하는데 소모되는 63갤론의 물의 양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 티셔츠는 초식동물의 배설물로 만드는 종이와 같이 내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환경 보호에 노력하는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과학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

[과학을 기다리는 시간]

중·고등부 서울 대성고등학교 박규현

이렇듯 환경 보호에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을 꾸준히 감시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 2020년 2월 한 소비자가 빨대가 장착된 유제품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편지를 보낸 결과 품질안전본부장이 빨대 없이 마시기 편한 포장재를 연구하여 빨대가 제거된 유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있다.

기업에 편지를 보내고 제안하고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의 생각이 기업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환경에 지속 가능한 도움이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읽은 책의 제목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은 평범한 우리의 생각과 실천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이다. 생수병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기에 좋도록 상표 포장지가 쉽게 분리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등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지구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뿐만 아니라 기발한 실천을 서로 공유하여 우리 이웃과 공동체들이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활 방식에 동참해서 더 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나가기를 소망한다.



넓은 바다에 두 명의 잠수부가 있다. 두 사람은 물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속 쓰레기를 줍고 있다. 한 사람이 묻는다.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이 되겠어요?” 두 잠수부가 대답한다.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어야요.” 이것은 한 음료의 TV광고이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이 광고를 떠올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인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학 기술을 이용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 준 책이 바로 『과학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책에서는 총 8개의 분야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내어 전달하고 있다. 바이러스나 과학 분야의 핫이슈, 건강·의학 분야에서 생체·환경 분야와 천문학·물리학, 신경과학이나 심리학까지, 여러 분야를 두루 망라하여 흥미로운 현실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 크게 세 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첫째는,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선이러 폰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단순히 귀를 꽂 막아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음의 높낮이 차이를 줄여 소음이 작게 들리게 하는 기술이었다. 이 조그만 물건에 그런 과학기술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도 과학적 이유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빙판길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이것이 마찰열 효과라고, 얼음 위에서 물체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해서 얼음의 표면이 녹아 물이 생기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원리는 알지 못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에 과학적 이유와 원리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뭔가 다르게 보였다.

둘째는,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모두 흥미로웠지만, 특히 ‘호주 산불’과 ‘달갈과 병아리’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먼저 2019년 9월에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올해 2월에서야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한반도 면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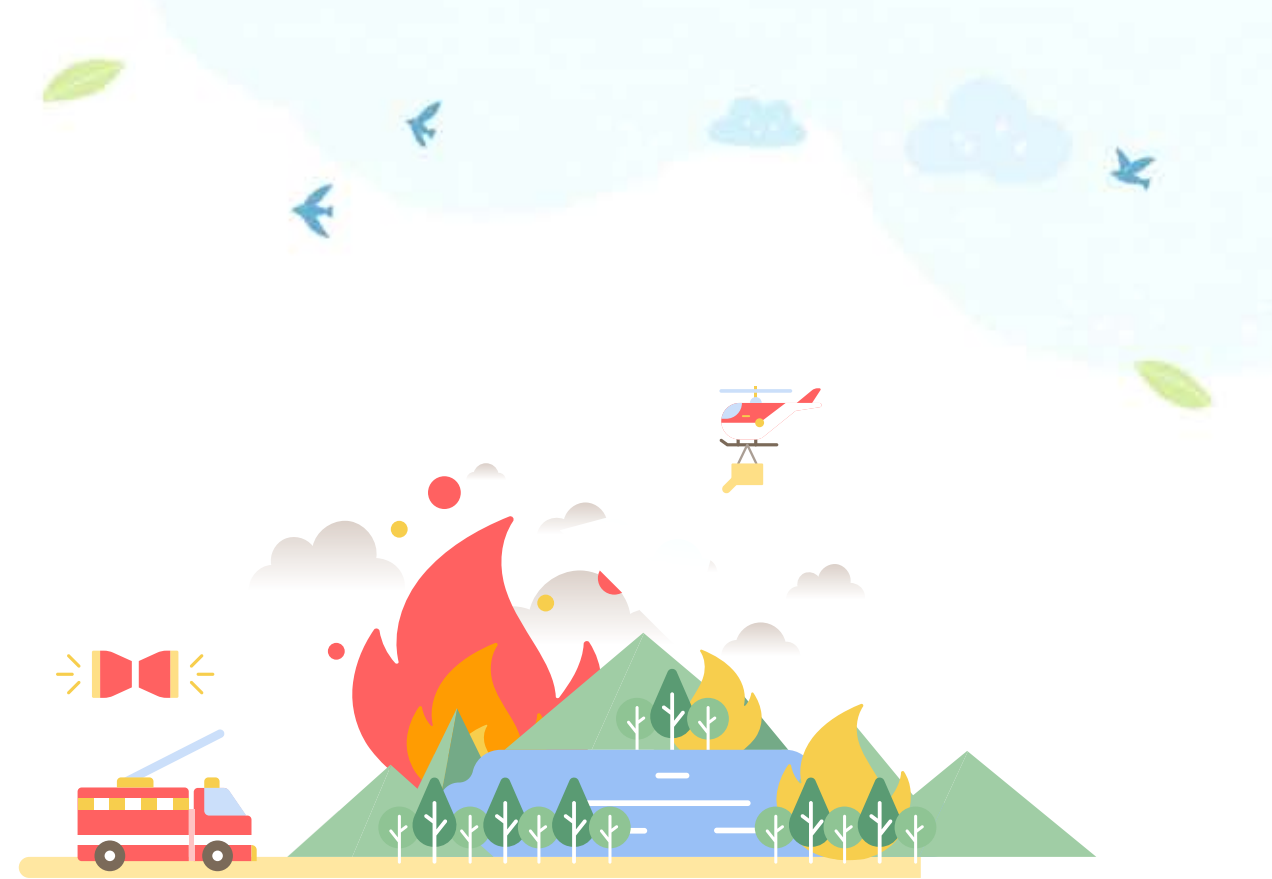
맞먹는 숲이 불탔고, 3만 3천 마리가 넘는 코알라와,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불의 원인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상 고온과 가뭄이라는, 인류의 활동으로 유발된 기후변화가 그 배경이라고 하니, 지구 생태계는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과 인류 활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 동물, 식물 모두 똑같은 생명인데, 왜 인간 때문에 다른 생명들이 피해를 입어야 할까. 학살에 가까운 이러한 일의 원인인,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발전과 편리를 추구하고 기술을 사용해 온 때문이라는 점은 평상시의 나를 반성하게 했다.

달걀과 병아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달걀을 대량 생산할 때 암컷과 수컷을 감별해서, 수컷은 가스로 질식시키거나 믹서기로 갈아 죽인다고 한다. 상업성 때문에 말이다. 역시나 인간은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며 많은 동식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동물을 이용하는 잔인한 실험들이나, 밍크 털로 만드는 코트 등 인간은 여러 분야에서 자유자재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과학 기술을 이용할 때, 생태계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 그런데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점을 바꿀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 또 과학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호주 산불은 이미 2008년에 예측된 바 있다. 단지 그 예측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준비가 부족했을 뿐이다. 또한, 수평아리를 감별해 내는 기술도 독일에서는 달걀 단계에서 미리 식별하여 암컷이 될 달걀만 부화시키는 기술이 상용화되었다고 한다. 과학 기술은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안내해 주면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LED(발광다이오드)는 형광등과 백열전구에 비해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처럼 작아 보이는 기술 하나하나가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과학 기술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측된 초대형 산불을 막지 못한 것은, 아직도 인간이 환경이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다른 기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경제성이나 단기간에 눈앞에 보이는 성과, 또는 편리성 등의 기준 말이다.

인간이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지키지 못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환경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고,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꼭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편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과학의 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를 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성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국가들끼리의 연합, 국가 차원의 법률 강화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며,



개인들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도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니 되찾기 위해 인간이 더욱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이며,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 기술이 더욱 연구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평아리를 죽이는 비윤리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얻은 달걀을 레스펙트라고 한다. 이는 '존경받는 달걀'이라는 뜻이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존경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도록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하여 우리 모두가 과학 기술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느꼈다.

『과학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현재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이제 나도 바닷속 쓰레기를 줍던 두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보려 한다. 또한, 환경문제가 나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동물은 인간에게 말하고 있다.

[대단한 돼지 에스더]

중·고등부 인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송석호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반려동물들의 권리를 강조하는 주장들이 많이 들려온다. 이러한 주장들을 듣다 보면 항상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반려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개와 고양이는 우리에게 가족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이지만 소와 돼지는 우리가 스스로 없이 먹을 수 있을까? 소와 돼지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가고 크면 도축되어 우리의 식탁에 놓이는 것일까? 이 책을 처음 본 순간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책에서 '나'는 에스더를 미니돼지인 줄 알고 처음 입양하게 된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사육용 돼지였고 300kg까지 자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곧 에스더를 생명 그 자체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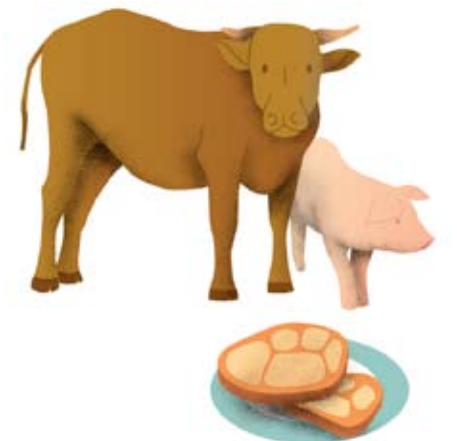
책을 읽으면서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찌 되었든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채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았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보면 볼수록 과연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한 가지 생명을 빼앗은 것이라는 생각이 생겼다. 우리가 그렇다면 왜 돼지나 소는 가축이 되었고,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이 되었을까? 단순히 크기 때문이었을까?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등등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채식하고 농장을 인수해서 동물들을 보호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해간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에스더라는 어찌면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돼지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많은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육식을 꺼리게 되는 면이 있었는데 채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물 복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수많은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고 오로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소의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발견하여 보게 되었는데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바로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는 장면이었다.

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동족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끔찍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꼈다.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동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학교 국어 시간에 동물실험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때도 동물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약품이나 화학제품들에 실험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동족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동물들을 정말 동물이 동물을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들의 생명과 권리에 대하여 매우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어찌 됐든 자신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생존할 수 없는 개체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생물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비건 푸드 라던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 또 다양한 동물 단체를 보면서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전보다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는 존재가 아닌 그들도 한 생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비록 지금은 별개 아닌 것으로 보일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동물과 인간 아니 모든 생물체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씩, 같이 하다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일반부 경기 용인시 영덕동 이효선

어릴 때 어머니께 혼나던 순간이 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또는 밥을 먹거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재가 또 한숨을 쉬네! 어린애가 왜 이리 한숨을 많이 쉬니. 자꾸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생긴다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던 것이다. 무언가 근심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아무 일이 없어도 크게 ‘휴우’하고 한숨을 쉬곤 했다. 어머니의 꾸중이 나의 대답은 늘 같았다. “한숨 아니야. 그냥 숨을 크게 쉰 거야.”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아이고. 또, 또 저렇게 한숨을 쉬고 있네. 엄마가 말했지? 자꾸 한숨 쉬면 한숨 쉴 일 생긴다고!’ 익살스럽고 귀여운 그림체의 만화를 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글들을 읽으면서 수많은 한숨이 나왔다. 한숨뿐이겠는가? 안타까운 탄식소리, 미간의 찡그린 인상은 퍼질 줄 몰랐고 나 자신을 포함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계속 화가 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 꽃 피는 산골 /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고향의 봄’이라는 제목을 가진 위 동요를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노래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노래에서 나오는 고향의 모습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고향의 봄’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만 같다. “나의 살던 고향은 / 아파트 단지 / 앞동 뒷동 관리실 엘리베이터...” 깔 깔하면서 위용 있게 서 있는 네모난 아파트 단지와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산을 갈아엎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갯벌을 메우고 덮었을까. 그 산과 갯벌에서 살던 식물과 동물, 곤충과 미생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간들이 행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한 낭비, 돈과 권력 그리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잔인한 여정의 양 옆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있다. 산세 좋은 골짜기의 중간에 세련되게 지어진 카페에서 짐짓 고상한 표정으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그 누군가의 발밑에는 생명의 빛이 곧 꺼져버릴 듯, 꽃 한 송이가 떨고 있다.

오늘, 여기, 대한민국

책을 통해 하늘다람쥐부터 반달가슴곰을 지나 연어와 남생이에 이르기까지 스무 종류의 멸종 위기 동식물들을 만났다.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환경문제를 다룰 때 자칫하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집중하기 쉽다. 타국의 사례가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은 맞지만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 보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안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은 바로 우리나라다. 대한민국 도로에서 로드킬로 죽어가는 동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립공원과 우리나라의 바다와 산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는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는 그에 비하면 괜찮구나.’ 하면서 안도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비겁한 변명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몰랐다고 핑계할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동요 ‘고향의 봄’에 나오는 그런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산으로 들로 마구 다니면서 값없이 주어지는 자연의 은혜를 누렸다. 그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은 당연히 모른 채로 말이다. 나의 자녀에게도,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도 자연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더하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한 방울의 물, 한 가닥의 풀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의 방식으로 모두 다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환경에 관한 다양한 책들을 읽어왔다. 젊은 시절에는 환경 운동가를 꿈꾸기도 했다. 바다를 향해하며 고래와 거북이를 구출하고, 산을 오르내리며 잘려나갈 위기의 원시림을 지켜내는 것을 꿈꿨었다. 그 꿈들은 왜 아직 꿈으로만 남아있을까?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비겁함’ 때문이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해결되지 않고 나빠져만 가는 상황을 보며 말 그대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싫어서 비겁하게도 최전선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그래서 책이나 영상에서 보는 환경 운동가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 든다.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만 떠넘기고 나는 편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지금의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교사이다. 집에서 살림을 하고 한 아이를 키워내며, 교사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의 빚진 마음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도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파괴적인 삶’이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아껴서 쓰고 있다. 종이, 물, 전기, 음식, 옷, 각종 물건 등을 꼭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한다. 이면지 여러 번 쓰기, 양치 컵 쓰기, 전기 플러그 뽑기, 지역 농산물 먹기, 공산품 되도록 사지 않기,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 환경은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다섯 살 아들과 종종 이야기 나눈다. 아들의 삶이 생태 감수성으로 가득하길 소망하며 말이다. 교사로서의 삶은 조금 더 역동적이다. 환경에 대한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실제 캠페인을 벌이곤 한다. 학교 내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지 조사하면서 나도, 아이들도 놀랄 때가 많다. 수많은 종이와 쓰레기들, 낭비되는 자원들을 분별해내는 맑은 눈을 가진 사람으로 학생들은 자라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환경에 관한 책을 일 년에 적어도 한, 두 권씩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으로 수업을 하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실천하는 유기적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은 조금씩 자라난다. 고등학교 과정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규 시간표 안에 자신의 진로를 학생 스스로 탐색하는 수업이 있다. 그때 환경 분야를 탐구하는 학생들이 매년 있는데 그 학생들의 지도를 꾸준히 맡고 있다. 올해는 미세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로 인한 오염, 지구 온난화 문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생태 꽃지도 제작 등의 탐구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 논문을 찾거나 다양한 단행본,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제자들의 빛나는 눈을 보는 것은 언제나 설렌다.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자연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한 아이가 자신 주변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지 늘 기대가 된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부분이 변해있을 것이라 믿는다. 나 혼자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게 우리가 같이 하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날도 올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내년 나의 수업에서 함께 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같이 꿈꿀 것이다.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낳을 또 다른 자녀와 지구 생명체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그렇게 천년만년 사는 꿈 말이다. '하나씩, 같이 하다 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할 시간이 벌써 기다려진다.



플라스틱 자린고비 되기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일반부 울산 북구 송정동 윤채원

“여보, 오늘...”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은근한 이 한마디가 수요일에 나의 입에서 떨어지면, 단출한 우리 세 가족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시작한다. 수요일은 바로, ‘분.리.수.거.날’. 이기 때문이다. 택배를 받고 포장을 뜯는 시간은 찰나와 같은데 포장박스의 테이프를 뜯고, 송장을 제거하는 일은 더디고 불편하다.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음식이 들어있을 때는 그렇게 영롱하던 포장지들이 한순간에 애물단지가 되어 분리배출 날까지 우리 집 현관문 앞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수요일의 눈치싸움은 대부분 아직 어린 우리 집 상전을 능숙하게 달래지 못하는 남편의 몫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가끔 내가 스스로 분리배출을 자처하거나 남편과 함께 분리배출하는 경우도 있다. 현관문을 꼭 차지했던 재활용품을 들고 택배박스는 종이류에, 뽁뽁이는 비닐류에, 어제 시원하게 마신 콜라는 페트병 또는 캔류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나면 깨끗해진 현관과 함께 뿌듯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만 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재활용품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이 내 마음 속에 잠시 자리 잡기도 한다. 그 궁금증은 크게 세 가지다. ‘내가 제대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걸까?’, ‘내가 분리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재사용되고 있을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량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플라스틱을 외계인으로 지칭한 소재목이 흥미로워 펼쳐들었던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를 읽으며 머릿속에 자리했던 이 세 가지 궁금증이 다시 떠올랐다. 이 책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플라스틱 소재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소재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분자구조, 공정과정과 같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자주 나와 술술 읽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칫 전문적이고 난해하게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는 작가의 마음 씬씀이가 책 곳곳에서 느껴졌다. 책을 읽으며 플라스틱 공정과정, 소재 특성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게 되었지만 내 마음 속 궁금증과 관련된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제대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걸까?’

매일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할 때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일주일 동안 생각보다 다양한 재질의 쓰레기와 마주한다. 택배 종이박스나 비닐은 쉽고 자주 나오는 재활용품이다. 어떤 포장박스는 비닐과 종이와 합쳐있기도 하고, 아기 자동차 같은 장난감은 말랑한 플라스틱과 단단한 플라스틱이 붙어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파트 분리수거함의 분류는 플라스틱/PET/비닐로 매우 단순해 어떤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하고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찝찝한 마음을 느끼게 된 이유가 역설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 분리배출 방식은 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된 것이었다. 분리배출 방식이 단순한 이유가 전체 재활용 단계 중 소비자의 참여영역이 낮기 때문이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집에 넘쳐나는 쓰레기를 모두 한 봉투에 넣어 바로 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이기고 시간을 쪼개어 씻고, 분리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극적 재활용이라니 억울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100년 이상 지구에서 부유하는 플라스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큰 고민 없이 구매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한 문장을 마주했을 때 약간 부끄러워졌다. 10가지도 넘는 플라스틱을 각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할 일은 ‘플라스틱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분리한 재활용품은 어떻게 재사용되고 있을까?’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긴 계기는 최근 뉴스에서 재활용과 관련한 안타깝고도 불편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였다. 여름 초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더웠던 올해 6월쯤, 어느 지역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처리 단가가 너무 낮아져 수지가 맞지 않자, 재활용품 수거를 갑자기 거부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는 재활용품들로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를 접한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내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것은 업체가 수거해간 재활용품이 내가 분리한 그 이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고 바로 매립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는 사실이었다. 이제까지 막연히 플라스틱, 비닐, 종이로 분류되면 그대로 다시 가공되어 박스, 포장지 등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것이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설사 제대로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재사용하기 위해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플라스틱이 가지는 가장 큰 무기인 저렴한 생산단가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분리수거의 목적이 재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큰 경종으로 다가왔다. 특히 재사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쓰레기들에 의해 대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내용을 읽자마자 우리집 구석에 비치된 공기청정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재활용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마스크 없는 일상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량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는 분리배출 작업과 시간을 줄이고 싶어 나온 생각이었다. 하지만 책을 읽

을수록 나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 아이에게 깨끗한 하늘과 맑은 바닷가는 책과 영상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혼자 살 때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환경 공익광고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남의 일 같았는데 미래를 짊어질 아이가 생기자 하루살이처럼 행동했던 나의 과거를 되돌리고 싶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책을 통해 소비자로서 재활용품을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책에서는 가상의 아파트 단지를 예시로 적극적 재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생산자, 소비자, 재활용 수거업체 등 각자의 역할 속에서 플라스틱을 최소로 생산하고 최대를 이용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 책에 적힌 내용 중 내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점검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최근 한층 더 강화된 환경정책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재활용품 깨끗이 분리배출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음식·음료 포장에는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기 등 당장의 편함을 조금만 희생하면 가능한 일들이었다.

좀 더 적극적인 재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자린고비 이야기가 떠올랐다. 제사에 사용하는 지방을 기름에 절여놓고 되풀이해서 쓰는 옛날 부자의 인색함을 플라스틱을 사용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자린고비의 마음으로 플라스틱을 바라본다면 집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은 최소화하고 사용한 플라스틱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플라스틱 자린고비’가 되어 보기로 하였다.

가장 먼저 배달음식 주문을 줄였다. 반찬가게 의존율이 높아졌지만 보관 용기를 가지고 다니자 집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용기가 확실히 줄었다. 아이 용품도 제품의 소재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장난감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장난감을 구매하려다 보니 구매 비용이 커지고 장난감의 다양성과 색감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비용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인터넷에서 최저가와 중고물품을 열심히 찾는 중이다. 집 앞 꽃집에서 꽃을 살 때도 화병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대부분 기분전환과 인테리어를 위해 사다 보니 한 번에 몇 송이만 구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집에서 포장해 주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쓰레기인 줄 알면서도 리본과 포장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 책을 읽고 과감하게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플라스틱 자린고비’가 되기에 매우 사소한 변화일지 모른다. 아직도 현관의 택배 박스는 계속 쌓이고 있고, 수요일 남편과의 분리배출 눈치싸움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재활용품 소비를 의식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 우리 집 분리배출을 일주일이 아니라 격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만 해도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약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사는 환경보호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플라스틱 자린고비 생활을 힘차게 시작해 본다.



외면하고 있던 비거니즘을 향한 나의 용기

[나의 비거니즘 만화(어느 비건의 채식&동물권 이야기)]

일반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박연웅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다 읽고 나서 결심하듯 내뱉은 말이다. 비거니즘을 향한 나의 세 번째 용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비건의 종류, 동물권과 관련된 이야기 등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도 꽤 있었다. 다만, 나는 행동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건에 도전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어차피 노력해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아멜리가 용기를 주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불완전한 실천이라도 의미가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비건은 왜 꼭 완벽해야 하는가? 나는 왜 그동안 완벽하려고 노력했으며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느꼈을까? 심지어 비건을 위한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 자책까지 하였던 나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내가 겪었던 비거니즘과 관련된 경험이 더 이상 실패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첫 번째 용기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나의 학창 시절 비건을 향한 첫 번째 용기이다. 고등학교 2학년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수업에서 개를 먹는 우리나라 문화가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끼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개고기를 먹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서로 팽팽했다. 나는 개를 키우는 입장으로 개를 고기로 먹는 우리나라 문화에 강한 불만을 느끼며 반대 입장에 서서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개고기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친구가 개고기는 반대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고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 개와 소, 돼지, 닭을 동일시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동안 동물은 사라지고 맛 좋은 살코기로만 존재했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소, 돼지, 닭이라는 동물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 라는 말과 함께 비건을 선포하였

다. 하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육식에 길들여져 있었고 이를 포기하는 건 무리였다. 급식에는 항상 고기가 나왔고 친구들과 모여서 축구, 농구를 하면 언제나 고기를 먹으러 갔다. 고기 뷔페는 식욕 왕성한 고등학생들이 저렴하게 고기로 배를 채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비건이라며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니 아이들은 나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급식시간에 내 앞에서 고기를 흔들며 놀리는 친구도 있었다. 이런 놀림을 견디지 못한 나는 결국 일주일 만에 비건을 깔끔하게 포기하게 되었다.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비건을 선포한 게 무색할 만큼 육식을 즐기곤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급식 선택권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의 학창 시절에 이렇게 채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함께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용기

최근 기생충으로 더 유명해진 봉준호 감독은 2017년 영화 ‘옥자’를 발표한다.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가 10년간 함께 자란 친구이자 가족인 슈퍼돼지 ‘옥자’를 구출하는 여정을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옥자를 하나의 생명체, 더 나아가 가족으로 생각하는 미자와 단순히 육류 생산을 위한 수단인 고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화와 행동을 보면서 나는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칭 동물애호가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옥자의 신체 일부를 기계로 추출하면서 돼지고기 부위로 표현하는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슈퍼돼지를 도축하는 사람이 미자 앞에서 옥자를 도축하려고 할 때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안돼!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난다. 이 책에서도 언급된 폴 매카트니는 비거니즘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만약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처럼 나는 유리로 된 도살장을 본 것처럼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비건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 비건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직장에서 나오는 점심에는 항상 고기가 있었고 친구들과 만남에서 비건이라고 하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심지어 직장 회식에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비난 섞인 질문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책에서 아멜리가 많이 의지하던 정신과 의사가 아멜리가 비건이 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상담 내내 조롱을 했고 이로 인해 아멜리는 병원까지 옮기게 되었다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때 아멜리는 비건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선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편한 시선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

그렇게 나는 또다시 불편함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두 번째 비건을 포기하게 되었다. 나중에 우연히 보게 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 중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영화를 찍기 위해 찾아간 미국의 한 도살장의 냄새가 잊히지 않아서 한동안 채식을 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덧 한국의 회식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다시 고기를 조금씩 먹게 되었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에 대해 영화로 표현한



퀴즈, 미세먼지!

[퀴즈, 미세먼지!]

초등부 인천 박문초등학교 임윤서

얼마 전 아빠에게 듣게 된 브라질 아마존 강의 얘기는 환경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들어도 슬펐습니다.

아마존 강은 지구의 허파로 안 좋은 공기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공기로 바꿔 준다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는데 몇 달 동안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고 많은 것을 주는 나무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꾼 씨앗이란 책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 환경 운동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자이자 그린벨트 운동을 창시한 왕가리 마타이는 어린 시절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던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가서 과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후 케냐로 돌아온 왕가리 마타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망가진 마을을 보면서 땅을 살리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마을 여자와 함께 어린 나무를 천 그루 넘게 한 줄로 심은 모습이 녹색 띠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린벨트 운동이란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많은 어려움에서도 아프리카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된 왕가리 마타이는 젊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의무에 대해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아빠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케냐라는 나라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으며 고모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케냐 마사이 부족이 사는 곳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소똥으로 만든 집에서 생활하고 물도 없고 흙바닥에서 자야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나의 좋은 환경에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웬지 케냐라는 나라에 더 관심이 갔던 이유가 이 때문인 거 같습니다.

마마 미티(나무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왕가리 마타이처럼 하나의 씨앗이 가지는 생명의 힘이 위대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작은 힘이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숲의 모습을 바꿀 수는 있다” 하고 했던 왕가리 마타이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족의 약속

[어머 이걸 꼭 사야해!]

초등부 인천 박문초등학교 황지효

우리 집은 다섯 식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시장에 가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집 문 앞에는 늘 택배상자가 쌓여있습니다. 내 동생 지환이는 ‘딩동’하고 벨이 울리면 “택배 아저씨가 선물줬어?”라며 반가워합니다. 엄마는 이것 저것을 보며 살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 나는 “엄마. 이거 왜 샀어?”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나중에 쓰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 이걸 꼭 사야 해!’에서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자와 악어, 고양이와 생선 사러 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사자와 악어, 고양이는 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생선을 잊고 ‘초특급 울트라 빅원더 폭탄세일’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마구마구 샀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까지 마구마구 사서 집안에는 물건이 가득 차고, 밥을 해먹을 수도, 심지어 잠을 잘데도 없었습니다. 사자와 악어와 고양이는 어찌나 서러운지 엉엉 울었습니다. 결국 텐트에서 자게 된 세 친구는 서로에게 닦아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텐트 안에서 사자의 방귀와 함께 물건과 고양이, 악어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사이좋게 화해하고 물건들은 다른 동물 친구들이 가졌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사라져서 친구들의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책을 읽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펭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펭귄은 빙하가 녹아 무너지자 도망치느라 힘들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질까봐 몸을 슬라이딩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빙하가 녹은 이유는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많이 따뜻해져서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녹고,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날씨도 이상기후라고 해요. ‘북극곰아’ 노래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부터 더운 날 에어컨을



잠시 꺼둔다면 펭귄도 북극곰도 조금 더 살수 있을까요? 엄마와 이야기 하며 가족들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와 동생들은 장난감도 적게 사고 물건을 아껴 쓰기로 했어요. 우리도 사자, 악어, 고양이처럼 필요한 물건만 사기로 해요. 그러면 포장지도 줄고 북극곰과 펭귄도 기뻐하겠지요? 우리 가족의 약속이 오래오래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

초등부 서울 봉천초등학교 노소정

대왕판다, 그레비얼룩말, 호랑이, 아시아코끼리. 이 동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이다. TV나 책, 동물원에서 많이 봐서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나도 아시아코끼리가 멸종위기인 줄은 몰랐다. 공룡처럼 어떤 생물종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멸종'이라고 하고, 한 생물종이 멸종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멸종위기'라고 한다.

나는 올해 초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어린이 도슨트가 되었다.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멸종위기 생물에 대해 공부했다. 코로나 19로 교육도 못 받고 활동도 못 하고 있지만,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도 여러 권 읽었다. 그중 하나가 멸종위기에 처한 30종을 뽑아 소개하는 도감인 <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이다. 나는 도감은 딱딱하다고 생각해서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은 도감인데도 사진이 아니라 우표처럼 동물의 모습을 그렸고, 멸종 이유와 동물의 특징을 재미있게 설명해서 폭 빠져 읽었다.

이 도감에 소개된 동물 중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노랑배측범잠자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노랑배측범잠자리의 서식지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비무장지대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성충이 사는 숲을 불태웠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해서 마음이 아팠다. 나라면 비무장지대 경계선을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이정표를 세울 텐데 왜 숲을 불태웠는지 이해가 안 됐다.

또 기억에 남았던 동물은 알프스하늘소다. 내가 아는 곤충들 중 푸른빛이 도는 곤충은 별로 없는데 몸 색깔이 하늘빛이 돌아서 흥미로웠다. 사람들이 알프스하늘소 애벌레가 사는 나뭇가지를 잘라 버리고 알을 낳은 나무를 장작으로 써서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알프스하늘소가 거기 사는 줄 알았을까? 만약 알고도 장작으로 썼다면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동물들을 잡아 먹고, 뿔이나 옹담이 건강에 좋다고 사냥하고, 서식지를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켜 동물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데 이 동물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노력하면 멸종되는 동

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에어컨도 적정 온도를 지키고, 분리배출도 열심히 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건 바로 어린이 도슨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끝나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

“검은코뿔소는 코뿔소의 뿔이 만병통치약이라거나 사랑의 묘약이라는 소문 때문에 사냥을 많이 해서 멸종위기에 처해 5250마리 정도만 남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코뿔소가 사라져도 엄마와 무슨 상관 이냐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한 생물이 멸종하면 그 생물을 먹는 생물들이 죽 게 되고, 또 만약에 잡아먹는 생물이 멸종한다면 그 생물에게 잡아먹히는 생물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부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먹이가 되는 생물이 멸종할 수도 있고, 또 그 먹이가 되는 생물들을 먹는 생물들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사람들이 멸종위기 생물들을 위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멸종위기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겠다.



쓰레기 산아, 미안해.

[쓰레기산의 비밀]

초등부 경기 파주 해솔초등학교 엄효제

먼저 책 제목을 보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쓰레기 산이 있는지 궁금했다. 쓰레기 산은 쓰레기들이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룬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지만 정말 걱정이 되었다. 환경오염이 심해져서 언젠가는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더러운 쓰레기가 내 눈 앞에만 안 보 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쓰레기를 수출하 고,가난한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수입해서 살아간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반타르 게방'쓰레기 매립지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다. 장화 하나만 신고 쓰레기 산을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주워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불쌍했다.

가끔 우리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몰래 버리거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 난 그 런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되고, 안타깝다. 마음 같아선 말을 해주고 싶지만 직접 말할 용기가 부족하 다.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쓰레기 산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부끄럽게 여 겨야 한다.

아름이와 다운이는 쓰레기 산 괴물이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쓰레기 산은 아 름다운 동식물들이 살던 숲이었다. 아름다운 숲이 몇 년 만에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다니! 다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또 있다. 2019년 필리핀에 수출한 쓰레기 6300톤이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일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쓰레기를 다시 가져와야만 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 책임을 다른 나라로 떠넘겼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어떨까? 독일의 쓰레기 매립률은 1%도 되지 않는데, 2005년에 생활 폐기물 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보증금 제도 덕분에 독일의 페트병은 약 90%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소중한 꿀벌들의 이야기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이야기]

초등부 인천 능내초등학교 김초희

봄이 되면 나는 아빠와 함께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 강남콩과 나팔꽃을 심는다. 강남콩과 나팔꽃은 덩굴로 자라서 여름에 베란다 창문을 가려주고 파릇파릇 초록색이 더위를 식혀주는 것이 좋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 신기하고 즐겁다. 하나만 빼고. 바로 그건 벌레들이다. 곤충들이 화분 주위로 몰려오는 것 같아 정말 싫다. 가끔 베란다 방충망 밖에서 꿀벌이 웅웅 거릴 때는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다. 곤충 중에서도 꿀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곤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꿀벌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벌의 종류가 2만 종이나 되고 꿀벌은 평생 동안 꿀을 만들며 보낸다고 한다. 꿀벌 12마리가 평생 일한 꿀의 양은 겨우 한 숟가락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랐다. 가끔 시골 할머니께서 꿀단지를 보내주시는데, 도대체 몇 마리의 벌들이 그 꿀 한 단지를 만들었던 것일까? 이제 꿀을 먹을 때마다 나는 꿀을 따느라 파닥거리는 꿀벌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꿀벌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꽃가루받이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 과일 같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 꿀벌이 하는 꽃가루받이 덕분에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맺히고, 동식물이 풀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꿀벌이 없으면 꽃가루받이를 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농장의 가축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꿀벌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책에서 벌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기후 변화, 서식지 감소, 질병, 농약 때문에 벌이 곤경에 처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꿀벌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면 벌의 수가 줄어들어 사람과 동물 모두 곤경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야 한다.

우선 아파트 베란다나 집 정원이 있다면 봄에는 벌이 좋아하는 향이 짙은 샤프란, 붓꽃, 여름엔 라벤더, 박하, 가을이 오면 해바라기, 담쟁이덩굴 같은 식물을 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꿀벌이 오면 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쓰레기가 사라졌다!]

초등부 인천 경서초등학교 김보미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나요?”이 질문은 내게 엄청난 호기심과 또 다른 생각을 불러 일으켰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문장이다. 바로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를 하는 튜베리 라는 학생이 했던 말이다.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는 말 그대로 금요일은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 나와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이다. 관심이 있어 다른 영상도 찾아 보게 되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어린 학생, 세번 스즈키가 약 29년 전에 했던 환경에 관한 연설을 들었다. 유튜브 영상을 본 네티즌의 반응은 “지금과 바뀌지 않았네” “어떻게 지금과 똑같은 일로 힘들 수 있지?” 등등이 있었다. 위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옛날과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계속 되면서 물가도 엄청 오르고 있다.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애호박을 사려고 하는데 작은 애호박 하나가 4600원 가량 되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다. 지금 이대로 계속 두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책에서 이미 1896부터 한국에선 환경 오염 문제가 있었다고 나온다. 우린 19세기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쓰레기 때문에 곤란할 때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린 애써 외면해왔고 올해에는 환경에 관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 난 사람들이 오몰 냄새를 감추려고 향수를 뿌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외면과 향기 뒤에 감춰진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환경에 관한 캠페인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았는데 #용기내 캠페인이 있었다. 마트에 가서 일회용품 대신에 자신이 쓰던 용기나 신문지를 가져가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이다. 고기를 살 때도 가정에서 쓰는 사각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오는 경우도 있다. 올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 폭염은 물론 산불, 전염병, 메뚜기 때 출몰 등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사건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환경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이 요인이라고 한다. 올 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집어삼키는 것은 아닌가 무섭기도 하다. 두렵기는 하지만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도 해본다. 많은 것이 있

전의 나처럼 소리 지르며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꿀벌은 꽃을 찾아 날아간다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벌이 창가로 날아온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야겠다. 또 식물을 키울 때는 농약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약은 벌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해롭다. 또한 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만들자. 학교 화단이나 공원 같은 곳에 가면 음료수 깡통이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꽃도 꺾으면 안 된다.

나 혼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당장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하면 조금씩 기후변화도 서식지 감소도 질병도 줄어들어 꿀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맛있는 꿀을 만들어 주는 부지런한 꿀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어떤 종류든 생명을 잃는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만약 우리가 벌을 잃는다면 자연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일꾼을 잃게 되는 셈이니 우리가 꿀벌들을 돕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갑자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 하나가 생각났다. 꿀벌이 사라진 다음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다. 꿀벌이 없는 세상에서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자!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전자쓰레기 세상에서 살아남기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초등부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이한결

“이 책 읽으면 새 스마트폰 사주나요?”

내 휴대폰은 삼촌이 쓰다가 준 오래된 휴대폰이다. 나도 친구들처럼 신형 휴대폰을 갖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께 휴대폰을 바꾸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으시다가 며칠 뒤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라는 책을 건네주셨다. 제목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자제품에 파묻힌 흑인 아이들 그림이 흥미로워 읽게 되었다.

표지만 보았을 때는 아프리카가 어려운 국가니까 전자제품을 구호 용품으로 보내 주는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들이 전자 쓰레기를 아프리카로 수출해 쓰레기를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그것 때문에 흑인 아이들이 전자 쓰레기에 뒤덮인 곳에서 생활한다.

나는 쓰레기라고 하면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만 생각했는데, 전자 쓰레기가 있다니……. 게다가 전자 쓰레기를 아프리카로 수출한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다. 아프리카에선 전자쓰레기를 불에 태워 안에 있는 구리 같은 것을 얻는다. 이 때 나오는 검은 연기를 마셔, 주민들이 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충격적이었다. 주민들이 자기가 만든 쓰레기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의 전자 쓰레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다니… 주민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 왜 선진국들은 본인들 나라에서 처리하지 않고 못 사는 나라에게 버릴까?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의정부에서는 경전철이 있었다. 경전철을 타고 외곽으로 가면 꽤 높은 쓰레기 산이 보인다. 산이 쓰레기로 뒤덮인 것이 아니라, 쓰레기로 산이 만들어진 것이다. 쓰레기가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 그 쓰레기가 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산이 매우 보기 안 좋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지역은 다녀온 후엔 잠시 동안이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자 노력했다.

내가 본 쓰레기 산 보다 아프리카 전자 쓰레기 산이 더 많겠지? 그 산을 없애려면 우리가 전자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전자제품을 살 때는 꼭 필요한지 몇 번이고 생각하고 사야 한다. 전자제품을 쓸 때도 청소를 해주는 등 관리를 해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또 구형 스마트폰을 쓴다고 무작정 바꾸는 것

겠지만 학생인 나는 우선 환경에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며 관심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쓰레기 매립지 견학 갔던 것이 이 책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견학 갔을 때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것이 한눈에 보였고 이 근처에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냄새, 벌레가 없어서 매립지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써 신기했고 더욱 더 궁금해졌다. 1992년에도 매립지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나는 매립지가 이번에 새롭게 생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그전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쓰레기 검사를 하는 지도 몰랐다. 나는 그냥 모든 쓰레기를 버리고 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경 쓸게 많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꼼꼼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견학하면서 보지 못했던 야생화 단지, 운동장들도 시간이 된다면 가서 보고 싶다. 쓰레기는 버리고 묻는 것, 눈에 보이면 혐오시설로만 생각하지만 쓰레기가 자원이 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립지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도 계속 묻기만 하다 보면 결국엔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매립지도 수명이 있다고 나왔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시킨 건 바로 정부의 체계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 도입과 이를 잘 따라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라고 나와있다.

나는 이 문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국민” 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국민이 정말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이 귀찮지만 성실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만 올바른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분리수거가 쉽도록 물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실제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해도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50%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은 나와 우리 이웃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툰베리와 세번 스즈키의 연설처럼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들을 위해 책에서 나오는 방법을 실천해야겠다. ‘매립지가 있으니 뭐 ‘쓰레기 그냥 매립지에다 버리는 것 아니야?’ 보다 우리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하루 약 5100kg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보고 절대 “아이구! 많이 나왔네”에서 그치지 않고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 조금만 노력하면 쉬운 것이니 모두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은 배달음식을 집에서 먹을 때 “나무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고 한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 신경 쓰는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한다. 굉장히 간단하고 쓰레기도 안 생기며 일회용품도 안 쓰게 된다. 분리배출할 때 사실 나도 가끔씩은 분리배출이 정말 귀찮을 때도 있지만 다 꼼꼼히 하고 나면 항상 뿌듯하고 새롭다. “나 하나쯤이야.” 보다 “나 하나지만”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면 더 좋은 동네와 더 좋은 지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읽고 모두 환경오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보다는 아껴써야 한다. 우선 우리 가족부터 전자제품 오래쓰기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잠시 참기로 했다.

나와 우리 가족만 실천 할 것이 아니라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친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전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열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전자쓰레기를 줄이겠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일으킨 잔잔한 파도가 해일이 되어 아프리카에 있는 전자쓰레기가 사라지길 바란다.



아프리카에 쌓이는 전자 쓰레기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

초등부 서울 언북초등학교 문수찬

며칠 전에 아빠가 핸드폰을 산 지 2년도 안 됐는데 신형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도 덩달아 아빠의 새 폰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 있대요”를 읽고는 아빠의 새 핸드폰이 만들어 낼 전자 쓰레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전자 기기를 자주 바꾸면 전자 쓰레기를 빠르게 많이 만들어 낸다고 했다. 전자 쓰레기는 우리가 쓰고 버린 전자 제품들을 말한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전자 기기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내 방을 훑기만 해도 전자시계, 아이패드, 선풍기, 스탠드, 전등, 에어컨, 핸드폰, AI 스피커 등 많은 전자 기기들이 한눈에 보인다. 이 말은 그 전자 기기들은 결국 전자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편리해서 하나 둘 샀던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정, 나라,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주인공 노새날은 옛것을 좋아하는 아빠 때문에 혼자만 휴대전화가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불만이다. 반대로 친구 지호는 최신 전자 기기에 집착하고, 새 것이 나오면 바로 바꾸는 아이다. 내 주변에는 지호 같은 사람들이 많다. 내 친구네 아빠도 폴더블폰이 출시되자마자 자신이 쓰던 폰은 아내에게 주고 빠르게 폴더블폰으로 바꾸셨다. 이처럼 우리는 한두 가지 새로운 기능과 산뜻한 디자인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내 눈이 번쩍 뜨였던 부분은 이렇게 버려진 전 세계의 전자 쓰레기가 모두 아프리카로 간다는 사실이다. 쓸 때는 편리하게 썼던 선진국 사람들이 위험한 전자 쓰레기는 아프리카에 떠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가난해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보려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전자 쓰레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전자 기기 속에 있는 몇 g도 안 되는 값비싼 금속을 얻으려고 고생하다가 날카로운 부분에 찢리고, 방사능 폭발로 죽거나 다친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버린 전자 기기 때문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니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나의 전자 기기 소비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 먼저 전자 기기 청소를 자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것이다. 노새날 아빠처럼 한 전자 제품을 30년을 쓸 자신은 없지만 전자

기기가 자성으로 끌어당긴 먼지 때문에 고장 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엄마한테도 에어컨을 오래 쓰기 위해 일 년에 두세 번은 청소하자고 말씀드릴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신제품 출시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그런데 그대로 광고에 현혹된다면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제품은 아프리카로 갈 후보들로 줄 서게 된다.

나는 이 책에서 아프리카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처럼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이런 사실을 사람들도 알게 된다면 기꺼이 전자 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떠벌리고 다니겠다. 함께 사는 지구에서 누구는 편리하게 살고 누구는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불공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부터 실천할 것이다.



나의 미래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빌 게이츠의 화장실]

중·고등부 서울 청운중학교 오시현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진 후, 화장실로 직행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엄마도 놀라시거나 화를 내시지도 않고 내가 던진 가방을 챙겨 두신다. 불일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점심을 먹은 후부터니까 거의 세 시간을 참았던 내가 대견하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화장실은 더럽기도 하고 밖에서 친구들 소리가 들리기도 해서 난 절대 불일을 볼 수가 없다. 소심한 내 성격을 원망해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청결하지 못한 화장실 탓으로 돌리며 허공에 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진짜 하고픈 말을 쏟아내 본다.

“야 이놈들아, 화장실 좀 깨끗하게 사용해라. 나도 학교에서 시원하게 불일 좀 보자.”

나의 투정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빌 게이츠의 화장실>을 읽고 맨 처음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다. 달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21세기에 화장실이 없어 야외에서 배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약 9억 명이나 된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편하게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우리는 지구촌의 화장실이 이렇게 부족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냈던 것이다. 우리가 화장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아니면 수세식인지 비데가 있는지를 고민할 때, 화장실을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다.

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지구촌 모든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환경의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야외 배변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150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 비해 깨끗하고 정화처리가 되고는 있지만, 수세식 화장실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가져온다. 물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기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물이 없는 최악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장실 혁명을 서두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며 존경받는 부자이기도 한 그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부인과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트 재단’을 만들어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하여 지구촌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빌 게이츠가 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에 나도 왠지 관심이 갔다. 빌 게이츠는 약 1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혁신적인 화장실 공모전>을 열었는데, 그가 제시한 혁신적인 화장실의 최소 기준은 첫째, 인간 배설물의 세균·미생물을 제거하고 에너지와 깨끗한 물, 영양소 등 자원을 회수하는 화장실일 것. 둘째, 상·하수 배관망이나 전력망 없이도 작동하는 화장실일 것. 셋째, 한 사람이 하루 사용할 때 비용이 5센트 이하일 것. 넷째, 가난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화장실일 것. 다섯째,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차세대 화장실일 것이다. 빌 게이츠의 도움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화장실 혁명에 뛰어들었고, 2014년 드디어 ‘빌 게이츠가 똥을 원료로 만든 물을 마셨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나왔다. 이 영상에서 빌 게이츠는 ‘옵니프로세서’라는 기계에서 처리되어 나온 물을 마셨는데, 이 기계는 사람 똥을 5분 만에 처리해서 식수로 만드는 놀라운 성능을 보였다. 게다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작동하며 똥을 처리해 깨끗한 물도 만들고 에너지까지 자급하는 놀라운 기계였다. 옵니프로세서는 기존의 하수 처리 시설보다 빠른 시간에 분뇨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영양 성분을 비료로 쓸 수 있고 깨끗한 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남은 슬러지를 별도의 매립지로 옮기는 운송 과정도 필요하지 않아 환경적인 측면과 비용과 에너지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화장실 혁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처음 <빌 게이츠의 화장실>이란 책 제목을 보고, IT 분야 천재인 빌 게이츠가 최첨단 기능이 설치된 화장실을 만드는 프로젝트라 생각했다. ‘얼마나 비싸고 대단하며 기발한 화장실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었다. 그땐 화장실이 없는 사람이 지구촌에 그렇게 많은 줄 전혀 몰랐다. 책을 읽고 현재 지구촌의 화장실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또한 가지게 되었다. 화장실 혁명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값비싼 기계 비용과 옵니프로세서로 하루 10만 명분의 분뇨를 옮기는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하지만 과학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곧 화장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의 발전은 과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고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어 나름대로 화장실 혁명에 동참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을 넣은 페트병을 변기 수조에 넣거나, 3리터 정도의 물을 담은 물통을 변기 옆에 두고 소변을 본 후엔 밸브를 누르지 말고 물통의 물로 해결한다면 한 번에 약 7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실천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

지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불교에서는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란 뜻으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른다. 또 예전엔 화장실을 ‘변소’라고 불렀는데 그 뜻 또한 화장실을 사용하면 편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화장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곳이다. 지구인 열 명 중에 세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환경을 생각하며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환경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글을 맺으려 한다.

“나의 미래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레타 툰베리처럼 !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중·고등부 경기 수원 광교고등학교 박예은

평소 청소년 자원순환 활동으로 생태 보전 활동, 환경 부스 그리고 모의 유엔 등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었다. 이번 광고 에코리더 프로젝트 활동으로 환경부 주최 우수환경 도서인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활동하면서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만큼 이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 주로 환경과 생태 분야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책을 처음에 봤을 때 더욱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독서를 하기 전 작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먼저 해보았다.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최원형 작가는 나무와 숲 공부를 하며 노거수 살리는 일에도 참여한 적이 있으며 생태, 에너지, 기후변화와 관련해 글을 쓰고 동시에 강의도 하는 작가였다. 작가는 '기후 변화 대응 아시아 시민사회 콘퍼런스'도 공동 개최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는 작가다.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상태 그대로 미래세대에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지었다. 작가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의지를 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 8개를 활용해 이러한 소비 행동이 다양한 곳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 습관을 환경과 생태에 연관을 시키니 더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컵라면, 바나나, 아보카도 그리고 생수로 먹을거리 문제, 휴대폰은 전자 폐기물 문제, 패스트 패션은 노동자 문제 그리고 마지막 롱패딩은 동물 문제까지 연관시킨다. 책을 읽으면서 눈에 띄거나 새롭게 알게 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컵라면은 정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다. 컵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라면은 국수를 기름에 튀겨서 건조한 음식이라고 한다. 라면을 만드는 밀가루는 대부분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밀가루를 튀기는 기름은 팜유라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팜유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팜유는 야자나무 열매를 짜서 얻는 기름으로 라면, 과자, 화장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이다. 팜유는 개발하지 않은 숲인 원시림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

도네시아에서 재배를 하는데 팜유가 필요한 회사에서 야자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밀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라면을 쉽게 먹고 있는 나에게는 멀다고 느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먹고 있는 이유는 지구 어딘가에서는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된 순간 마음이 아팠다. 두 번째로 제일 공감했던 것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질병문제였다. 솔직히 이 문제가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안 쓰는 부분 같았다. 아귀의 배 속에서 20cm인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오고 고래 뱃속에서 비닐 80장이 나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우리가 쉽게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낀 나라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 판매하며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 몇몇 나라에서는 보증금과 벌금제도를 도입해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노력들을 알고 나니 우리나라에서도 주변 국가들을 본받아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책에는 이 외에도 낮은 인건비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순간의 행복을 위한 패스트 패션으로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있다. 각각의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생하는 것들이라서 읽으면서 엄청 뜨끔했던 것 같다. 책에 나온 모든 것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책에 더 집중하며 읽은 것 같다.

세계 청소년 기후 행동을 이끈 스웨덴이 16세 여고생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가 나온다. 환경 활동을 해오면서 한번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녀의 이야기가 나온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묵묵히 활동을 해나가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세계경제포럼 등 수많은 연설들을 하며 3월 15일 시위를 하였다. 그레타 툰베리를 보면서 항상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혼자서라도 조금씩 바뀌나가면 분명히 끝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레타 툰베리의 의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최원형 작가가 무슨 마음으로 책을 썼는 지 느끼게 되었다. 먼저 작가는 책 속에서 독자들에게 경어체 아닌 대화체를 사용한다. 책 속에서 대화체를 써서 더 친근하게 다가와 이해를 쉽게 했던 것 같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작가는 결국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성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기업까지 다 같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책의 주된 소재인 소비는 개인이 더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소비를 계속하는 등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한다. 책에서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거 불필요한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라며 아예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자고 말을 한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내 주변 많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달라졌다. 평소에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활동할 때는 환경보존이 항상 너무나 뻔한 내용 같았다. 그러나 책에서 익숙한 소재들을 사용하니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고 행동의 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작가가 말하

는 ‘즐거운 불편’이라는 용어를 항상 새길 것이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이며 함께 공유하며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나 하나가 바뀐다고 사회가 변할까’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고 환경을 위해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었다. 평소 나는 생물 보전을 위해 우리 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과 네이처링을 활용하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현황 생태지도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꿈의 학교를 진행하며 생태환경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있다. 환경부스나 모의유엔에서 또한 환경에 대해 널리 알리며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는 중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에 뿌듯함을 느꼈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세대에 자신있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사회 환경 조성에 소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생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고 직접 실천하며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화의 결말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중·고등부 인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김나영

“나는 생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살고 싶어.” 영화 <월-E>에서 우주선 엑시움의 선장이 우주선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방향키인 오토에게 한 말이다.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이 말을 통해 생존(survive)와 살아가다(live)의 가장 큰 차이를 깨달았다. 2020년 지금,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 때문에 이 지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담은 영화들을 한편씩 소개하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앞으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온 지구에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생물은 오로지 인간뿐이다. 그에 모자라 우리는 편리를 위해 흙바닥을 콘크리트와 타르르 덮어버리고, 모든 땅을 높다란 잿빛 건물들로 빼곡이 수놓았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인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를 지배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책에 소개된 수많은 영화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바로 <월-E>였다. 영화 <월-E>는 등장인물들의 최소한의 대화로 최대한의 감동을 끌어올리는 영화였다. 사람들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떠난 지구를 홀로 외로이 청소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월-E는 지구를 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 우주선 엑시움에서 온 이브를 만나 사랑을 배우고 함께 사람들을 지구로 다시 데려오려고 애쓰는 영화이다.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이었던 이 두 로봇의 눈에 비친 인간들의 미래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영상통화를 했으며, 음식을 씹거나 걷는 법조차 모르는 아기로 퇴화해버렸다. 집 나가면 고생만 한다는 말처럼 지구를 떠난 인간들은 인간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지구를 하나의 물건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이 세상을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생명들의 절규로부터 등을 돌린 채 지구가 우리를 없애려고 할 지경까지 왔다. 중요한 건 이 넓은 우주 그 어디에도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존재하더라도 찾지 못



알지못하면 듣지못하는 카나리아의 목소리

[환경호르몬 어떻게 해결할까?]

중·고등부 광주 대성여자중학교 노윤

“엄마, 라면 너무 먹고 싶은데 라면 스프 절반만 넣고 끓여 먹으면 안돼요?”

동생이 라면 한 봉지를 집어 들더니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면서 입술을 쪽 내밀며 귀여운 척 애교를 부렸다. 우리 집에서는 라면을 먹으려면 이렇게 엄마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어릴 적부터 아토피가 심했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건,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이건 어떤 재료가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항상 신경을 쓰신다. 그래서 그런지 나 또한 나 나름대로 환경호르몬이란 단어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도 제목만 보고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미리 예상하고 호기심을 갖지 않았다.

환경호르몬을 줄여라,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뜨거운 액체는 플라스틱에 담지 말라, 환경호르몬은 좋지 않다.....등등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실들! 그마저도 나는 학생이고 엄마가 알아서 다 신경 써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책의 처음 부분을 읽으면서 그동안 지구온난화와 환경호르몬이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와 무관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지막장까지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동기를 유발시켰다.

이처럼 우리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때때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넘실대는 정보들이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우리를 현혹시키며, 그 정보를 불안해한다.

누구나 환경호르몬이 안 좋은 것은 잘 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좋지 않은 호르몬으로부터 지키고 싶어 한다. 우리 가족만 생각해봐도,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고 가까이 가지 않고, 생리대에서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는 당장 친환경 천 생리대로 화장실 서랍을 채웠다. 또 뜨거운 물을 컵라면 용기에 담으면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고 컵라면을 유리그릇에 끓여먹고, 컵라면 용기의 뚜껑에서도 위험한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듣고는 면을 컵라면 뚜



껍에 떨어져 먹는 추억 서린 행동도 자제하고 있다. 생활에서 조금씩 이 위험한 물질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위험한 물질’은 대체 뭘까? 이 위험한 물질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물질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니!

책에서는 방부제와 농약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방부제가 없다면 치약은 삼일마다 한 번씩 바뀌야 할 것이고, 여름에 캔 참치를 먹는 것은 응급실에 실려갈만한 일이 될 것이다. 농약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오리를 길러 눈에 풀고 벌레를 잡아먹게 하지 않는 이상 벼는 절반이 메뚜기 떼의 식량이 되어 버릴 것이고, 사과에는 애벌레가 살고 있었던 집의 흔적이 구멍이 되어 뽕뽕 남아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위험한 물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이나 심지어 음식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르고,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인 환경 호르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환경호르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쳐나는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만 있다면, 환경호르몬이 인체에게 주는 경고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이 경고를 영국의 광부가 깊은 탄광에서 이용한 새인 ‘카나리아’에 빗대어 표현했다. 이 새는 매우 예민해 약간의 유독가스에도 반응하여 광부들은 카나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탈출했다고 한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카나리아는 설 새 없이 울고 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아는 만큼 들린다.

어린 아이가 자동차의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평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카나리아의 간절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호르몬에 대해 많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카나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알팍한 지식들을 바로 알고, 그 지식들을 옳게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식에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 그 자체로 중요한 것과, 실천하기 위해 배우는 지식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식의 중요성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피해를 막는 것은 실천이 더 중요한 또 다른 예이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학생들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교육을 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으로 그저 그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이 지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에 대한 지식은 실천을 뒷받침해야 하는 교육이다. 특히 환경호르몬에 있어서는, 환경호르몬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기도 하며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이 정확한 명칭이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어떤 물체에서 주로 나오는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의는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령 모든 플라스틱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것인지, 생수가 담긴 페트병은 안전한 것인지, 친환경 치약, 친환경 생리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다.

일회용 빨대보다 물티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양이 더 많다는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고 실천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는 물티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화장실이나 집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디퓨저나 향초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음식의 탄 부분을 잘라내고 먹고, 랩 사용을 줄이는 것도 환경호르몬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그리고 방송매체에서 환경호르몬의 정의보다는 환경호르몬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향의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카나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날갯짓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상식]

중·고등부 광주 대성여자중학교 장세은

어렸을 적 바로 앞에 강이 있던 할머니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나의 어렸을 적 좋은 추억에는 꼭 강이나 동물, 자연이 함께였던 것 같다. 내가 제일 좋아하던 동물인 오리를 할머니 집 앞 강에서 구경하던 추억, 여름날 강에서 축제가 열리면 사촌들과 강에 뛰어들어 놀던 추억, 바다 내음을 가득 풍기는 추운 제주도 바다 앞에서 아빠가 사준 코코아를 훌쩍이던 추억, 주글주글하지만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산책하던 추억, 가족들 손을 잡고 강을 거닐며 삼삼오오 이야기하던 추억 등 이런 추억들은 모두 따뜻하고 오늘의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커서 광주로 이사해 도시의 편리함에도 매력을 느꼈지만,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릴 때 꼭 아이에게도 저런 자연과 가족과의 따뜻하고도 편안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단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어쩌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다. 커서 본 지금의 강은 내가 알던 강과 꼭 다른 강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강은 시간이 지나며 나의 어릴 적 기억하던 강의 모습과는 점점 다르게 변해갔다. 해초와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맑고 반짝이던 강과 내가 어릴 적 슬프거나 심심할 때 보러 가던 오리는 보이지 않고 쓰레기가 떠다니고 새까만 강물만이 흐르는 것만이 보였다. 난 의아해하며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앞에 강이 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떠다니고, 내 친구 오리랑 물고기들은 다 어디갔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 강에 쓰레기가 떠다니고 그러니 물고기가 오지 않지..오리는 강 중간에 떠있던 수풀을 치워버리니 잘 오질 않지..” 마음이 쓰라렸다. 내 어린 시절 추억을 담고 있던 강이 이렇게나 변하다니...정말 사람이 자연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에 의해 강이 변해가는 것을 봄으로써 나는 김웅서 박사님이 쓰신 책인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 상식’의 내용 중 ‘플라스틱 등 쓰레기들은 바다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것이 먼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인류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바다로부터. 바다는 오래전 지구상의 생명체가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요람이며, 각종 자원을 공급해주는 보물창고이며, 기후 조절을 해주는 천연 냉온방기이다. 또한 휴양지로써 쓰이며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바다생물을 통해 의약품과 바이오 연료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바다는 하나하나 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역할을 하며 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바다를 잘 보존하여 함께 공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바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마치 눈앞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애써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자연이 조금은 변해가고 있단 걸 어쩌면 오래전부터 인식한 것처럼 보였다. 정부와 세계 기구는 티비와 휴대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을 문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기사부터 공익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방면으로 환경 문제를 홍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천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였나 보다.

정부가 일회용 비닐 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한 후, 아파트 앞 마트에 간 적이 있었다. 약 50대 정도로 보이는 아줌마께서 알바생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일회용 봉지 무료 제공을 금지가 된 후 아주머니가 비닐 봉지를 달라고 하자 알바생이 정책이 바뀌어 무료로는 드릴 수 없다고 하니 아주머니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것이었다. 물론 정책이 바뀌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 정책에 대한 기사에만 봐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정책이라면 환경을 위해 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어쩌면 사람들은 환경이 정말 사람들에 의해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고 있단 것을 느끼지 못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다. 아무리 태평양에 쓰레기섬이 있고, 바다 생물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지만 사람들 중 대부분은 그걸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눈을 가린 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땐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은 주지 마세요라고 요청하고, 장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카페에 갈 때는 텀블러를 챙겨가는 등 이런 작은 행동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생각보다 처음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환경보호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생각보다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처음 할 땐 익숙하고 불편해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땐 나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 사람들을 떠올려 보아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미래.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 나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일으키듯, 미세한 변화가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행동들은 작은 날갯짓이다. 작은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날갯짓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환경과 생태 꿈 아는 10대

[환경과 생태 꿈 아는 10대]

중·고등부 경북 경주 근화여자중학교 박유정

즐거운 불편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해서 세상이 좀 더 살 만한 곳이 된다면, 생태계가 덜 위협을 받는다면,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생을 마칠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숲에 살고 있는 생명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즐겁다. 불편은 불편이지만 즐거운 불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일회성에 그치는 너무도 편리한 물건들을 실생활에서 접하며 사용하고 있다. 무방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된 무분별한 쓰레기로 지구와 생태계는 고통받게 되고 결국 그 고통은 인간이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지구환경과 생태는 과연 우리 10대가 되돌릴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이 있다. 지금의 환경과 생태에 대해 제대로 알면 되돌리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편리함과 지구환경의 그림자를 건어내기로 시작된다. 출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컵라면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이 컵라면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라면을 튀길 때 팜유가 사용된다. 팜유는 야자열매를 짜서 얻은 기름인데, 라면뿐만 아니라 과자나 다양한 음식에도 사용된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야자나무 농장이 점점 늘어나서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 자연 그대로의 숲인 넓은 원시림에 팜유가 필요한 회사에서 야자나무를 심으려고 숲에 살던 나무를 마구 밀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숲을 없애고, 하고 싶은 대로 용도를 변경해도 되는 걸까?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와 북부 말루쿠 지역에서도 대규모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엄청나게 벌목하거나 불법으로 불을 질러서 숲이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곳에는 희귀식물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물들이 전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



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숲이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무가 없는 산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 산사태의 위협을 받는다.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의 피해가 크다. 물을 머금었다가 내보내는 숲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산의 나무를 잘 관리하고 하천을 정비해야 홍수와 가뭄을 예방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숲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목재를 대느라 상당 부분이 사라졌고 지금은 라면이나 과자, 화장품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팜유를 생산하느라 남은 숲마저 사라지고 있다. 숲이 사라지면 서 그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살 곳을 잃고 있다. 숲이 없어지면 인간 역시 살기 힘들어진다.

기술 발전이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책임원칙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술은 개발하지 않게 하는 원칙이다. 몇 해 전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준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오히려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 살충제의 유해성을 경고하자 일반인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풀밭에 살충제를 뿌리니까 벌레가 사라지고 연쇄적으로 새들도 사라져 봄이 와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화학물질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일은 불분명한, 가능한 사전에 조심하고 되도록 덜 써야 한다.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꾸준히 지속하면 큰 변화를 일으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컵라면을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 패스트푸드를 먹는 횟수를 줄이는 일,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썩어 분해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잘 썩지 않는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장점이지만, 오늘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었다.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바다생물을 위협하고 결국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 우리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 또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다.

'나 혼자 이런다고 뭐 되겠어?'가 아니라 '나라도 실천해볼까?'하는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지구환경과 생태를 지켜야겠다.



지구에게 쓰는 반성문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중·고등부 대전 지족중학교 강아현

나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마음의 빔을 느껴왔다. 어렸을 때 본 환경오염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 다큐멘터리로 인해 나는 처음으로 '파괴'와 '죽음'같은 단어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었다. 어쩌면 나로 인한 것일지 모르는 단어들. 아직도 우리 삶 곳곳에 가득 들어차 있는 단어들.

내가 크리스 조던 감독의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에서 본 동물들의 모습은 책에서 배웠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바다를 헤엄쳐야 하는 새와 바다거북이가 플라스틱 조각이 배에 차서 날지 못하고, 코에 빨대가 꽂혀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새와 바다거북이가 마치 지구를 망치고 있는 인간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 같았다. 짐작하건대 인류는 온갖 동식물들을 비롯한 지구 전체의 적,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 많은 생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에 신음하며 울고 있고, 인간들은 무책임하게도 지금껏 그 소리를 외면해 왔다.

현재 지구는 어떤 상태인가?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득한 누런 봄, 40도를 육박하는 이상고온과 끝나지 않는 장마가 기다리는 여름, 처음부터 없었던 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가을, 보란 듯이 시작되는 지루한 추위의 겨울까지.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지난 몇 년 동안 생긴 엄청난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아마도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비상 사이렌이자 경고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어컨 온도를 더욱 낮추고, 가까운 거리에도 자가용을 이용하며 지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망쳐버린 지구의 신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이 글은 나와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삶의 터전인 지구에게 쓰는 진심 어린 반성문이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은 우리에게 친숙한 19편의 영화들이 품고 있는 환경 메시지를 찾아 탐구하는 책이다. 또한 우리가 지구와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며 한 번쯤 생각에 빠지게 해준다.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영화 19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월-E>다. 영화 속에서 사람

들은 소비지상주의를 지지하며 무분별한 소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쓰레기는 탑처럼 점점 높게 쌓여 지구를 가득 채웠다. 그 결과 지구는 모래폭풍이 부는 '죽음의 행성'으로 불리며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구를 버리고 '엑시엄'이라는 자동화된 우주선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도피해 버렸다. 다만 '월-E'라는 지구 최후의 작은 청소 로봇만이 텅 빈 지구에 홀로 남아 쓰레기를 치우며 지구의 회복을 도왔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놀랍도록 영화 속 상황과 매우 닮아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 전 한 뉴스 기사를 본 것이 떠올랐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불과 5년 뒤인 2025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사였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에 현실감이 느껴져 충격적이었다. 영화와 현실의 다른 점이라면 우리에게 '도망칠 우주선'과 '제 2의 지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레기를 대신 치워줄 '월-E' 같은 청소 로봇도 없다. 그 무엇도 우리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줄 수 없는 지금,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일들이 아주 다양하다. 플라스틱 빨대를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기,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제거해서 분리배출 하기,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기,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기 등등. 이처럼 일상 속 사소하지만 큰 실천이 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 그 중 하나가 1954년 미국 벨연구소가 태양전지 기술을 공개할 때 처음 등장한 개념인 '에너지 하베스팅'이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주변에서 우리도 모르게 버려지고 있던 에너지를 모아 재사용하는 기술이다. 기계만큼이나 우리 몸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며, 그것들의 대부분은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science times'에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 120와트, 운동을 할 때는 700와트 정도의 에너지가 버려진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굳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를 재사용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에서 새는 전자파에너지나 열에너지를 수확하면 스마트폰 충전을 1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인 '프리볼트'를 통해 실현된다. 프리볼트는 허공에 떠다니는 와이파이 등의 신호를 전류로 전환해 전자제품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라고 한다. 이처럼 일상 속 환경에 대한 나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눈앞에 닥친 '디스토피아(dystopia)'의 현실화를 막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 문제를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속담에 빗대어 표현하곤 한다. 환경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전체의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지구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지구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실천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지구상

의 마지막 인류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 첫걸음을 모두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두 손에 쥐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머지않아 지구라는 영화관에서 건강한 동식물들과 함께 청정 자연을 만끽하는 우리의 모습이 상영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고 파란 하늘을 보며,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꿈꿀 수 있는 미래의 어느 날을 그리며 글을 마친다.





하루 습관이 지구를 살린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중·고등부 경남 창원 안남중학교 전명욱

나는 올해 1학기 국어 수행 평가 시간에 전자 폐기물에 대해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의 양을 조사하였고, 여러 시각 자료를 사용해 PPT를 만들었다. 자료를 찾다가 중국 구이유라고 적혀있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곳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전자제품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세계 곳곳에서 흘러들어온 폐제품들이 그곳에서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유행과 필요에 따라 전자제품을 바꾸는 동안 구이유의 땅은 오염이 되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한눈에 봐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검은색이었다. 지구가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염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했던 구이유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청소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이유의 실태를 보고 깨끗한 환경을 잘 지켜야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건 전자 폐기물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은 환경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플라스틱이다. 아마도 플라스틱이 환경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먼저 다룬 것 같다. 플라스틱은 음식과 음료를 포장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물건에도 많이 들어있다. 우리 가족은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나 페트병들을 잘 씻어서 분리하여 배출한다.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정된 장소 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큰 문제가 된다. 제대로 수거가 안 된 플라스틱들은 대부분이 빗물에 떠밀려 바다로 향하게 된다. 이런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소화불량이나 영양실조로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플라스틱이 파도에 의해 부서지고 점점 잘게 조각이 나서 미세플라스틱이 되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만들어 진지 불과 몇 년 만에 벌써 전 세계의 바다에서 검출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소금이나 음식에 들어있더라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편하게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를 돌고 돌아 작은 알갱이가 되어 결국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뉴스를 보니 일주일에 사람들이 먹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합치면 카드 한 장을 만들 수 있고, 한 달이면 칫솔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 책은 스테인리스강을 소개했다. 플라스틱을 대신하는 여러 용품 중 작가가 스테인리스강을 꼽은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제품 대신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배려하는 일이 되니, 사람들이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플라스틱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다는 아빠의 말씀에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었다. 이 플랑크톤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플라스틱 분해 효소 유전자를 플랑크톤에 맞게 개량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플랑크톤이 페트병을 분해해서 먹는 영상을 보았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긴 해도 점점 없어지더니 결국에는 페트병 하나를 다 먹어버렸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플랑크톤이 바다에 있으면 해양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바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아쉽긴 했지만, 환경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우리 부모님도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신다. 어떤 날은 택배를 가지러 현관에 나가보면 종이상자들이 내 키 만큼이나 쌓여있다. 막상 상자를 열어보면 대부분이 과대포장 되어있다. 물건을 정리하고, 상자는 테이프며 붙어있는 이물질, 완충재를 제거하고 나서 배출한다. 포장박스가 늘어나면 쓰레기도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는데, 종이상자는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재가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비닐로 만들어져 있다. 최근에는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 완충재나 다른 완충재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분류해서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헷갈린다. 재활용 구분이 어려운 제품은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광고가 많아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책에서 제시한 10가지가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 방법들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실천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텀블러를 가져가면 음료를 담아준다던 가게도 코로나 때문에 위생상 개인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줄 수 없다고 한다. 일회용품이 깨끗하다는 편견 때문에 사람들은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만 더 찾는 것이 아닐까? 환경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플라스틱은 줄어들 수 없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을 몰아내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확한 분리배출은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누구나 생활습관이 되면 그만큼 환경은 되살아나게 된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하나씩 바꾸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환경에 해로운 물건들이 사라지고, 오염된 지구가 살아나는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들의 거울, 영화 속 우리 지구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중·고등부 부산 사직여자중학교 배지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라는 제목을 보고 영화와 환경을 연결해 놓은 책인 것 같아 흥미가 생겨 읽어보게 되었다. 총 19편의 영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또 미래에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환경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재밌는 영화와 관련되어 있어 소설책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마션>이었다. 화성에 혼자 남았지만 자신이 가진 기술로 감자도 재배하는 등 놀라운 생존 방식을 보여주어 인상 깊었다. 이것이 주인공 마크가 식물학과 기계공학을 전공한 NASA의 준비된 우주인이기에 가능했던 일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고 끊임없이 산을 깎아 건물을 지으며 쓰레기를 마구 버리며 땅에 묻고 태우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 우리는 화성으로,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낮은 곳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물을 구하고 마크처럼 작물을 재배하며 지구와 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화 <마션>을 통해 화성에서의 생존에 대한 놀라움도 느꼈지만 동시에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경각심도 느낄 수 있었다. 또, 마크가 감자를 재배할 때 사용한 주된 물질이 자신과 동료들의 ‘똥’이라는 사실이 신기했다. 무심코 물을 내리며 보냈던 똥들이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는데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똥도 미래의 중요 자원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식량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 시스템이 붕괴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와 관련된 글의 내용 중 로마 클럽의 ‘월드 3’이라는 모형이 있었다. 시나리오1은 1972년 당시의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의 상황을 전제로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인데, 꾸준히 상승하던 인구, 식량, 산업 산출물이 2010년 즈음 정점에 이르고 그 후 하강하는 것을 나타낸다. 시나리오9에서는 2020년 이후에 지구를 구하는 플랜이 시행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동영상이었다. 자연 속에서는 1만 년 동안 0.01%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지만 사람

스스로는 100년 동안 0.01%를 증가시켰다는 점을 다룬 영상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한 지구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후회되었다. 과도한 성장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로 인한 파괴로 붕괴되는 지구를 상상하니 너무 끔찍했다. 지금이 2020년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지구의 위기를 인지하고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오랜 터전이었던 지구를 떠날 생각보다 지키고 가꿀 대안을 내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옥자>라는 영화를 통해 인간의 욕심으로 물건같이 대해지는 동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고, <다운사이징>을 통해 인간이 줄어들기 보다는 자원 소비를 줄이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또, <남한산성>을 통해 공론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에서는 개발지의 거주자였던 동식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단지 영화는 여가 시간에 재미를 위해 즐기는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에 대한 뜨거운 이슈들을 주제로 한 유익한 영화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1장에서 나왔던 영화들을 토대로 동식물과 공존하는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온 동식물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또한, 동식물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아니다. 그들도 인간들처럼 한 생명체로 대해야 한다. 인간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발전시켜온 인권이 있듯이 동식물도 권리가 있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때 우리 지구는 인간과 동식물이 올바르게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탐욕을 억제해야 한다. 탐욕으로 우리 몸이 망가지고, 다른 인종인 인간을 차별하고, 자원에 대한 욕심으로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인의 탐욕은 자제하고 지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한정된 자원을 공평히 분배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책임은 공평히 나누어야 한다. 지구의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 누군가 욕심을 내면 지구 반대편 사람이, 혹은 바로 옆집 사람이 굶주릴 수도 있다. 또한, 지구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오직 정해진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현실의 발전과 개발에만 급급해서 지구의 상태를 외면하지 말고 더 나아가 미래를 보아야 한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근본은 지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 안에서 살아왔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리한 욕심으로 그 여건들을 하나 둘 파괴하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한 물과 토양은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더럽혀져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 낸 공장과 자동차들이 내뿜는 연기들로 대기가 붕괴되고 있다. 또 석유 같은 자원들은 남용되어 다른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사태까지 왔다. 더 이상의 오용과 남용은 용서받을 수 없다. 공존이 아닌 한 존재를 위한 이익은 해를 끼치게 될 것임을 현재 우리는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 느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영화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 보았다. 환경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과 밀

접히 연관되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우리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노력해 준다면 다시 원래의 지구로 돌아올 것이다. 이젠 단순한 의지 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우리 지구를 위해 나부터 노력할 것이다!



제로 플라스틱을 향한 발자국

[쓰레기 책]

일반부 부산 남구 대연동 김형욱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내외국인 입국자 방역지원팀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해왔다. 코로나 19라는 감염병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상당했다. 그것과는 별개로 골치 아픈 문제가 따라다녔다. 업무가 끝난 후 발생한 쓰레기, 특히 1회용 방진마스크를 버려야 하는 순간이다. 방진마스크 앞부분에 달려있는 플라스틱필터가 갈등의 주범이다. 안전을 위해서 곧바로 버릴 것인가?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착용할 것인가? 를 두고 혼자 냉가슴을 앓았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알게 된 단비 같은 존재가 《쓰레기책》이었다. 제목을 처음 접한 순간, 그 단 순명료함에 놀랐다. 저자 이동학 씨가 지구촌을 직접 발로 뛰며 체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의 제목 밑에 있는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글귀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한다. 집에서 매일 사용하는 칫솔만 보더라도 그렇다. 마트에서 칫솔을 구입하는 것은 늘 고역이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든 제품이 있는지 두리번거리려도 매번 허사였다. 그러던 중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대나무로 만든 칫솔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다. 그것을 계기로 플라스틱 칫솔과 결별했다. 나로서는 이상과도 같은 제로 플라스틱생활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오랜 시간 일상을 함께한 너무나도 편리한 플라스틱을 끊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보다는 종이연습장에 직접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내겐 더욱 그렇다. 책상 위 연필꽂이에는 버리지 못한 플라스틱 펜으로 가득 하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 시간이 흘러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이 먹고 결국엔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미세한 플라스틱은 언제든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은 일상이 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쓰레기 문제에 관한 딜레마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외식을 지양하고 포장과 배달음식으로 대신하는 상황이다.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이 되면 맛닥뜨리는 고민이 있다. 외식을 할 것인지 배달음식을 주문할 것인지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배달음식을 주문한 날은 몸은 편해도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했다. 음식이 담긴 포장용기부터 수저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이 대부분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식사 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뒤처리가 겹쳐져왔다. 남은 음식물은 십중팔구 용기에 담겨진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음식물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대충 처리한 날은 종일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그것을 알고도 별로 개의치 않는 직원들을 보면서 홀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측면에서 포장 및 배달음식이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것인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면적이 프랑스 국토의 세 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P70) 이 대목은 책을 읽는 내내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류를 타고 돌고 돌아 만들어진 거대한 쓰레기 섬은 이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양한 상품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TV홈쇼핑, 컴퓨터, 스마트 폰을 막론하고 24시간 쉴 새 없이 뿌려지는 상품광고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그 결과 너도나도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인다. 이것과 관련하여 책에 소개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작은 가게는 내 호기심을 한껏 끌어당겼다. 그곳은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숍’, 즉 포장재 없는 가게를 말한다. 이곳은 구매한 물건을 담아주는 비닐봉지뿐 아니라, 개별 상품을 포장한 포장지가 아예 없다고 한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을 용기를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 언젠가 플라스틱이 없는 마켓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한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를 꺼내 판매 중인 견과류를 담는 모습은 한마디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평소 쓰레기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해서는 까막눈이었다. 지구촌을 누비며 쓰레기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담은 이 책을 읽은 이후 내 인식은 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막연히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인간과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나의 행동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물건을 사기전에 미리 목록을 작성한다. 구입하더라도 최대한 미루려고 애쓴다. 외출할 때는 어디를 가든지 가급적 장바구니를 챙긴다. 썩스럽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다. 하지만 이 땅을 밟고 사는 지구인으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플라스틱 쓰

레기가 우리 일상을 넘어 지구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인가 입국자 대기실에서 방역소독을 하던 중이었다. 뭔가 뽀족한 것이 자꾸 턱밑 살갓을 찔렀다. 방역복 상의의 끝단 부분에 뽀족하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모서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것이다. 가위로 빠져나온 모서리를 자르기만 하면 해결된다. 플라스틱 조각 하나쯤이야 어떠랴. 그리 생각했는데도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자르지 못했다. 방역복을 통째로 버리기 전까지 따끔한 것은 그냥 감수하기로 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과 증가 속도는 삶을 위협하는 살상무기가 되고 있다. 저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는 성장 중심의 산업구조에 과감히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절실하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 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처럼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지구촌에서 들불처럼 번지기를 기대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자본주의시대에 성장과 소비라는 지난한 욕망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이길 그날을 꿈꾸면서.....





중고 문화가 환경을 살린다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가게에 갈까?]

일반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영민

중학생 시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에 구멍을 뚫는 프레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며 그 주변인 무스와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당시 남학생들은 무스를 잔뜩 발라 머리 스타일을 원하는 대로 고정시켰고, 여학생들은 스프레이를 사용해 앞머리를 둥글게 고정하여 찬바람에도 흐트러짐 없는 스타일을 유지하였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이야기인데, 요즘 연일 뉴스에서 전문가들은 환경문제를 언급하지만 그 시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시절엔 무스와 스프레이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요즘은 마트나 카페 등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컵 등의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캠페인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을 뿐 환경문제에 대해 가슴 깊이 고민하거나 스스로에게 닥친 엄청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생존에 있어 당장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시점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책 제목처럼 ‘핀란드 사람들이 중고가게에 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단순한 궁금증을 가진 채 말이다.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핀란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생각보다 소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음의 실상 때문이었다.

‘의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0퍼센트의 폐기된 직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20퍼센트만이 재사용 재활용된다. 매립된 의류는 썩는 데에 200년이 넘게 걸리며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 현재 1퍼센트 미만의 직물만이 성공적으로 재활용될 뿐이다. 의류 재활용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보편화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새 옷을 구매할 생각만 했지, 버려진 헌 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아무 문제없이 잘 버려졌는지까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마다 짧게는 매일 아침 옷장을 열며 늘 똑같은 고민을 했을 뿐이다.

‘오늘 뭐 입지? 작년 이맘때는 뭘 입었기에 오늘 마땅히 입을 옷이 없을까?’

아마도 나처럼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드는 의문일지 모른다. 패션쇼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기와 유행에 따라 트렌드 맞춤형 의상을 추구하는 패션 피플도 아닐진데 정말 이상하게도 옷장에는 항상 옷이 없다. 아니, 옷장에 옷은 늘 가득 차 있는데 막상 입을 옷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옷을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들이게 되는 것이다. 새로 산 옷들이 모두 최대한의 수명으로 버티려면 좋겠지만 그 주기는 점점 매우 짧아진다. 처음 구입할 때에는 몇 년은 입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색이 너무 튀다고 생각이 들거나 함께 코디할 옷이 마땅치 않거나 입다 보니 내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가지가지의 이유로 고작 두 해도 못 채우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다 보니 계절마다 버리는 옷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미니멀리즘의 포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옷을 폐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입지 못해서 또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등등의 푸념을 하면서 말이다. 어느 날은 나에게 어울리지는 않지만 나름 상태 좋은 겨울 모직코트를 버리려다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생처음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진과 함께 공지를 올렸다. 자주 입지는 않았어도 나에게만 예쁘고 좋다고 생각한 옷일 텐데, 더구나 구매한 지 1년이 지난 코트를 과연 누가 살까,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거의 올리자마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핏을 보고 싶으니 입은 채로 사진을 찍어 달라, 실 사이즈보다 품이 큰지 작은지, 사진으로 보는 색상과 실제 색상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등.

사는 곳도 다양한 사람들의 문의에 답변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결국 내가 생각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지급하고 구매를 한 사람은 강원도 어느 마을의 여성분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에게서 더 이상 불필요해진 옷인데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누군가가 더 예쁘고 값지게 다시 새 옷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하고 행복했다. 그동안 동네 폐기물 업체나 아파트 입구의 분리수거함에 마구 버려졌던 내 옷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다. 결국 쓰레기더미를 만든 것이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입고 버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인데, 돌아보면 그 많은 버려진 옷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그 수명을 다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버리기 직전 옷장의 옷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멀쩡한 옷 들인데 쓰레기더미에 쌓인 모습을 보면 순식간에 그야말로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재사용’이라는 단어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용해 본 적은 없는 단어이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라 하니 참 신기한 문화다. 핀란드에서는 주말 오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중고 물건을 사고판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지금보다 더 어릴 적 본인이 갖고 놀던 장난감과 책을 모아 판매자로 참여하고, 야외 작업장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나와 직접 옷을 수선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니 중고 문화가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듯하다. 핀란드 생활은 곧 중고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주위의 시선이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까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도 중고 가게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줄 아이템을 찾고, 동네마다 ‘재사

용'이라는 중고 거래 그룹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분명 중고 사이트가 있고 중고 거래도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먼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도 쉽고 빨라진 소비와 폐기,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고 문화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빈곤과 굶주림의 시절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는 문젯거리이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소비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따라야 하지 않을까? 쓸모없는 물건을 남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치를 부여하여 구매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재사용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니 말이다.

문득 5월 봄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네 바자회를 열었던 것이 기억난다. 이웃과 함께하는 매년 개최한 행사였던 것 같다. 그 시절엔 외동이기도 거의 없었기에 두세 명의 형제자매가 입던 거의 너털해진 옷들을 가져다 아주 적은 금액에 내놓기도 했고, 가방과 실내화 등 낡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는 느낌으로 그냥 하루 즐거운 놀이를 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내가 성장해서도 아파트 공원 앞이나 넓은 공터에서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물건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종종 보았다. 아마 지역별 문화행사인 것 같다. 지나가다 보면 그 풍경에서 에너지가 느껴졌다. 연간 지역별 행사로 끝나지 않고, 또 버릴 물건이 아닌 재사용할 주인공을 찾아줄 목적으로 핀란드처럼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우리 자신을 대체하는 현상을 본다. 내 것이 되었을 때 동시에 얻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편의는 너무나 달콤해서 우리는 기꺼이 부담을 끌어안고 살기도 한다. 소유해야만 마음이 행복해지는 기분이었다. 쉬운 소비와 빠른 폐기가 현대사회의 문제라면, 개인이 전부 소비하기엔 자원이 너무 낭비되고 반드시 그 물건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면 함께 나누어 쓰는 방법이 최선이겠다.

제작년 여름은 죽을 것 같은 더위에 시달렸고,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기승이라고 하더니 엄청나게 기나긴 장마가 왔고, 태풍의 피해 또한 컸다. 봄과 가을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뚜렷한 사계절은 노래 가사로만 불리나 싶을 정도이다. 과거부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계속 불거졌지만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 환경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환경 운동가들의 몫은 절대 아닌 상황이다. 당장 우리 개개인에게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주제인 것 같지만 그 피해는 전 세계가 온전히 맞이하고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과 실천만이 거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시작으로 나는 옷의 재사용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무조건 소비하고 축적하고 폐기하는 것은 나와 내 후대가 살아야 할 지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읽고 책꽂이에 그대로 쌓여 있는 책들을 중고서점에 기부 또는 판매를 하고 우리 가족의 옷들을 다시 살펴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겠다. 핀란드 사람들처럼 중고가게를 적극 활용하고 선순환을 이루는 중고문화에 동참해야겠다. 누군가 입던 옷이라는 편견을 깨고 나 역시 온라인 중고 사

이트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나에게 맞는 의류와 물건을 구입해 봐야겠다. 지금 당장 나 한 사람이 거창하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몸짓이 하나의 문화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불완전해도 이룰 수 있는 현대

[나의 비거니즘 만화(어느 비건의 채식&동물권 이야기)]

일반부 경북 김천시 신음동 박다영

삶의 변화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평온할 줄 알았던 나의 일상은 지난 2월, 대구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뒤틀리고 말았다. 강제로 무급휴직을 받은 나는 9월이 끝나가는 지금도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말이 무급휴직일 뿐, 사실은 실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래선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책하는 날이 많아졌다.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무너진 일상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씩 배울수록 감염병과 동물, 생태계 오염과 식단이 모두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해온 모든 것이 일상을 짓누르는 커다란 태엽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지구와 인류를 향한 죽음의 싸이클과 다름이 없었다.

생태계를 다방면으로 공부하면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바로 '비건'이었다. 특히 '채식주의자'야말로 생태계 보호의 선두주자란 전문가의 의견에 적잖이 놀랐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고기만 안 먹는 거 아니었나. 그게 왜 생태계 보호가 된다는 거지? 순전히 궁금증으로 촉발된 나의 비거니즘 알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나의 비거니즘 만화〉는 비건이 된 작가의 일상은 물론이고, 비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선순환을 일으키는지 만화로 쉽게 설명한다. 나처럼 처음 비건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책이었다. 비건이 되면 동물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식량난과 물 부족을 해결할 단초가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육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저는 자신을 '어떤 채식주의자'라고 정하고 단어 안에 갇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채식'을 대하는 각자의 '마음'이죠. 〈나의 비거니즘 만화〉 21p 중에서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비건을 완전한 채식주의자로 보지 않고, 채식을 지향하는 것만

으로도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작가의 시선이었다. 작가는 누군가를 훈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해 주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거부감이 쉽게 사라졌고, 나도 한 번 비거니즘을 지향해볼까? 하는 용기까지 얻었다.

나는 아주 작은 소도시에서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와 식습관이 닮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양배추, 호박잎 찜. 향긋한 채소를 좋아해서 찻잎 비빔밥도 즐겨 먹기도 하고, 가지와 고추찜만 있어도 행복하게 식사한다. 이런 음식은 비거니즘과 가깝지만, 분명히 거리가 먼 음식도 있다. 바로 라면과 바닐라 라떼가 그것이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즐기게 되는 이 음식은 이미 습관이 된 지가 오랜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했다. 온전한 하루를 위해 즐기는 이 음식이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동물의 고통을 필요로 한다면, 계속 먹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하고 말이다.

-타성의 안개는 어쩌면 셀 수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씩 하나씩 안개를 걷어 나가다 보면 모두가 무사한 세상이 밝아오지 않을까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 333p 중에서

책장을 덮은 후, 나는 소소하게 비거니즘을 지향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매일 마시던 바닐라 라떼를 격일로 마시기.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나름 견딜만했다. 그리고 카페에서 처음으로 고집을 꺾고, 우유를 두유로 바꿔서 마셨다. 생각보다 고소하고 맛있었다. 이런 게 작가가 말하던 성취의 맛일까.

그렇게 좋아하던 라면도 먹는 횟수부터 줄였다. 그리고 대체하기 위해 비건 라면을 검색해서 구매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비건 라면 또한 맛있었다. 채수로 국물을 만들면 이렇게 깔끔한 맛이 나는구나. 웬지 숨겨진 보물 찾기를 하는 기분도 들고,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들어서 우울감마저 낮아지는 것 같았다.

-저는 불완전한 비건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서로의 비거니즘을 지지하길 바라요. 〈나의 비거니즘 만화〉 38p 중에서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비건을 지향한다고 한들 세상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진 않는다는 걸. 게다가 나는 연로하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라 건강 관리상 완전한 채식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지향하려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비거니즘의 출발점에서 있다.

"너 그거 알아? 우리 지역에 비건 빵집 생겼더라. 이런 촌에는 비건 빵집 같은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지. 너 빵 좋아하잖아. 같이 먹으러 갈래?"

친구와 통화하는 나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꼭 돈을 벌어야만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 또한 사회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다. 비거니즘을 통한 이 깨달음은 괴로웠던 코로나 시국에 나를 좀 더 따뜻하고도 넓은 세상에 데려다 놓았다. 나는 이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불완전해도 이룰 수 있는 현대'라는 이름으로.



‘계획적 진부화’를 넘어서기, ‘오늘’을 넘어서 ‘내일’의 길을 찾기

[낭비 사회를 넘어서]

일반부 서울 강동구 암사동 김동근

낭비 사회 너머 도사린 무시무시한 함정 - ‘계획적 진부화’

2년이 지나면 휴대전화를 바꾸고, 유행이 지나면 옷을 새로 사서 바꿔 입는다. 냉장고에 식재료는 많지만, TV에 특정 음식이 유행하면 다시 대형 마트로 달려가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30년쯤 지나면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새로운 이름을 붙여 아파트를 짓는다. 막연하게 사람들의 ‘낭비벽’을 비난하기 쉽지만, 곰곰이 따져 보면 라투슈가 『낭비 사회를 넘어서』에서 언급한 ‘계획적 진부화’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단지 ‘심리적 진부화’를 겪으며, ‘이건 신선하지 않아. 유행에 뒤쳐졌어.’라는 생각으로만 물건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물건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결함’을 강요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휴대전화의 배터리는 더욱 기술적인 진보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새 제품 출시에 맞추어 유독 빨리 닳도록 ‘설계’되어 있고, S/S니, F/W니 해가며, 상반기-하반기를 나누어, 아니 4분기로 나누어 TV에서는 유명 배우와 모델을 내세워 가며 패션을 소비할 것을 ‘설계’한다. 가장 극적인 것은 아파트의 경우인데, 이는 취향도, 기능적 결함의 의도적 삽입의 문제도 아니다. ‘시세’와 이른바 ‘재테크’의 문제다. 집을 부수기 전부터 ‘기대심’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중국에 ‘재테크’는 완성된다. ‘자본의 이익’과 맥이 닿을 수밖에 없는 계획적 진부화의 잔인한 면모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라 하겠다. 이 무시무시한 함정 앞에서 그저 무력해질 따름이다. 부수고 없애야만 새로운 이익이 생긴다는 생각,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계획적 진부화’의 본질 - 독점과 획일화

소비를 촉발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고도화가 낭비 사회의 주요 원인임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 온 지점이다. 라투슈의 탁월함은 이 원인을 한 꺼풀 더 벗기고 들어가,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독점’에 더 무서운 원인이 있다는 것을 웅변한 점이다. 사실 그렇다. 자유경쟁이라도 보장된다면, 더 오래 살아남는 물건,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더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통해 ‘즉시성’을 강요받는 계획적 진부화의 세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돈을 덜 써도 된다는데, 어떤 소비자가 이를 마다하겠는가 말이다. 하지만, 독점, 최소한 과점 상황에 놓인 사회로 인해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으니 우리는 늘 물건을, 아니 ‘내일’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악랄한 독점 때문에 너무도 많은 생명들이 ‘내일’을 빼앗긴다.

더욱 무서운 것은 독점의 질서가 생각 속에까지 침습해왔다는 점이다. 많은 광고를 통해 여러 제품들을 다양하게 향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비하는 것’이라는 행동 양상을 획일적으로 생각 속에 정착시켜 온 것이다. 그리고 ‘새 것’, ‘새 집’, ‘새 차’, 속 ‘새’라는 관형사 안에 그 행동 양상을 상징적으로 투사해 온 것은 자본주의 발달사의 핵심이다. ‘부품이 없으니 새 것을 구입하세요.’, ‘이 혜택 꼭 누리보시라고, OO폰을 미리 써볼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새’의 주문은 계속된다. 지구는 그만큼 버려진 것들로 채워진다.

해법을 찾아 - 시릴 디옹의 『내일』에서 찾은 세 가지 희망

라투슈의 『낭비 사회를 넘어서』에서 가장 아쉬운 건 ‘탈성장’을 화두로 낭비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그 구체적 면모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다행히 시릴 디옹의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를 통해 희망의 구체적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찾은 해법을 세 가지 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즉시성’의 철학을 ‘지속 가능’의 철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시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화학비료를 써가며 농토를 황폐화하는 대신, ‘놀라운 농장’과 ‘퍼머 컬처 농장’처럼 유기농은 기본이고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작물을 함께 재배, 땅의 힘을 무리하여 뺏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심지어 단위당 생산량은 거대 농업 회사가 단일 작물을 재배할 때보다 높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없다. 그러려면 품이 많이 든다. 사람이 조금은 더 고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이 노력이 결국 더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 가능한 노력’에 함께 하지 않을까.

둘째, ‘독점과 획일’의 가치를 ‘분권과 다양화’의 가치로 전환하는 것

이다. 부채와 이자를 통해 전체 화폐량을 늘리면서 과도한 소비 경제를 부추기는 중앙 화폐 제도의 독점에서 벗어나, 슬슬 우리 사회에서도 자리 잡고 있는 지역 화폐 제도를 정착시켜 ‘자본’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금의 돈을 쓰더라도 당장 순환될 수 있는 지역 화폐는 적은 노력으로도 ‘우리 동네’의 삶 여러 국면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획일화된 생활공간 자체를 다양화해야 한다. 소위 ‘효율’을 위해 주거지구, 업무지구, 농업지구 등으로 공간을 나눌 것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의 도시 농업처럼, 토드모던의 ‘놀라운 먹거리’ 운동처럼 도시 곳곳에 작물을 재배할 일이다. 적게 이동하고도 일하러 갈 수 있게, 쉬러 갈 수 있게 공간을 재배치할 일이다.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송전할 일이 아니라, 집에 태양광 패널을 붙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에너지

를 소비하고도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일이다. 다양한 공간, 다양한 교통 수단, 다양한 경험들 속에 '독점과 획일'의 가치가 저물 수 있도록 말이다.

셋째, 『내일, 새로운 세상이 온다』 속 교육의 고민처럼, '마주보기'하게 해야 한다. 교육의 성과를 올린다는 명목으로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게 수업을 하니, '나'를 제외한 것들은 '대상화'하도록 자연스레 교육받는다. 그러니 사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더 쉽게 버리고 더 쉽게 사게 되는 것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한 공기의 사랑, 아낌의 인문학』에서 존재의 마주보기를 통해 상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눈부처'를 발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순간 '아낌'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 키르코자르비 학교처럼, 본 수업을 따라잡지 못한 학생을 마주보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그 '아낌'의 시간만큼 학생은 사물과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아끼면 쉽게 버릴 수 없기에 소중한 자신의 눈부처를 찾을 때까지 고치고, 더 조심스레 사물과 사람, 세상을 마주볼 것이다. 마치 영화 『토이스토리 4』에서, 보니가 버려진 포크를 마주보고 소중한 장난감 '포키'를 만든 것처럼.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가기 위한 일이다.



지구는 얼마나 아픈 것일까

[2050 거주불능 지구]

일반부 대구 북구 동천동 이은진

“강풍은 하지 마라니까. 얼마나 전기를 많이 먹는지 알아?”

땀을 뻘뻘 흘리며 선풍기를 강풍으로 트는 동생에게 아들이 하는 말이다.

“예준아. 동생이 많이 더운가 봐. 강풍 틀어도 돼. 댄 집은 다들 에어컨 틀고 있는데, 우리 집은 그에 비하면 선풍기잖아.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도 에어컨보다 에너지 많이 안 들어.”

평소에도 전기 에너지 사용에 엄격한 9살인 아들이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얼음 조각 위에 고립된 북극곰을 보여주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 2100년에는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더니 더 예민하고 심각하게 반응한다.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곳에 사는 우리 가족은 매년 여름이 될 때마다 에어컨 구매를 고민해 보지만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더위쯤은 견뎌 보자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해서 아직 집에는 에어컨이 없다.

2020년은 참으로 이상한 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우려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아이는 입학이 연기되고, 등교 연기, 재택 근무, 상점 폐쇄 등 집콕 생활을 해야 했는가 하면, 유례없이 긴 장마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상황이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다. 간판이나 지붕만 남겨놓고 물이 들어차 겨우 몸만 피한 이재민들의 절망적인 모습과 애써 가꾼 과일은 다 떨어지고, 농작물들은 병충해를 입어 울상인 농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팬데믹의 공포는 여전하여 어디를 갈 때나 마스크부터 챙겨야 하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번에는 제발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대체 우리 지구는 얼마나 아픈 것일까? 막연히 추측만 하던 나에게 데이비드 윌러스 웰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는 그에 대한 답을 주었다. 책을 읽는 내내 잡기 놀이에서 술래가 뒤를 바짝 추격해 와 곧 잡힐 것 같은 불안감과 조급증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자는 책의 첫 줄부터 '상황은 심각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한다.

2015년 파키스탄의 카라치나 인도의 콜카타에서 치명적인 폭염으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7년 캘리포니아의 화재로 1,140km²의 면적이 불타고, 1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같은 해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약 1,2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년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큰코영양 폐죽음의 원인 역시 높아진 기온과 습도가 문제였고 201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발병사례가 0건이었다가 지금은 감염자가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난 진드기에 의한 라임병 역시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2010년경 과테말라 역시 잦은 열대 폭풍과 화산 분출, 지진까지 큰 재난을 차례로 겪은 후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조직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살인율도 높아졌다. 기후 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산불, 폭염, 폭우, 가뭄, 감염병의 전파,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것이 급기야는 인간 사회의 기본 시스템마저 붕괴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준다.

이렇듯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변화로 신음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특정 몇몇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를 어느 나라의 누가 입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마치 심지가 조금씩 닳아가는 폭탄을 돌리며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모습 같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탄소 배출량이 2100년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기온 상승 상한선은 8도로 추정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100년이라니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싶겠지만 80년 뒤의 일이다. 8도가 더 뜨거워지면 해수면이 60미터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 3분의 2를 덮으며, 우리가 먹을 작물을 생산할 토지가 거의 없어진다. 산불은 더 자주 발생하며 가뭄과 폭염을 일상처럼 견뎌야 할 것이라 예측한다. 꼭 8도가 아니라 2도만 상승해도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 얼음에 반사되었던 태양광이 반사되지 않고 지표면에 흡수돼 지구는 더 뜨거워진다. 북극에는 1조 8000억 톤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영구동토층이 있는데 그것이 녹으면서 더 강력한 온실가스층을 만들어 낸다.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생성하는 식물은 말라 죽어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하지 못한다. 뜨거워진 대륙은 가뭄과 산불로 이어지고, 뜨거워진 바다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기 힘들어진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상의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개체 수가 감소되면 탄소는 더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온 상승을 심화시키는 '기후 되먹임'이라 불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내리막길에서 한번 브레이크에 발을 떼자마자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로 더 이상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찔한 모습이 그려진다.

잠시만 멈춰서 둘러보라. 1회용 플라스틱 컵은 거리의 어디서나 데굴데굴 구르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분리수거함에는 스티로폼, 비닐봉지가 넘쳐난다. 냉창고에서 시들어 버린 각종 채소와 과일들은 음식물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도로에는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배기가스를 내뿜는다. 상점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같은 곳에는 늘 시원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 돌아간다.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공기를 위해 공기 청정기가 돌아간다. 인간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너무도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불러들이고 있다면 행동을 취함으로써 참사를 막을 수도 있다고. 앞으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이다. 소고기 섭취를 줄이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비행기를 타지 않는 등 나름의 소비 패턴을 조정하여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개인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차원의 큰 움직임으로 확장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속 <그린 뉴딜> 정책이 매우 반가웠다. 정부가 기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를 대중화하여 저탄소 사회로 정책적으로 바꾸어가겠다고 하니 인간이 아닌, 자연을, 지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기후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남긴 탄소발자국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넌 쓰레기가 아니야!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일반부 경기 용인시 상현동 김진희

“엄마! 저 머리 짧게 자를 거예요. 솟컷!” 고등학교 1학년 딸의 선언에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모두 말렸다. 분명 후회할 거라고, 머리 다시 기르려면 얼마나 힘든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만류했다. 그러나 딸은 머리를 싹둑, 그것도 아주 짧게 자르고 왔다. “아~ 시원해! 샴푸도 조금 쓰고, 물도 조금 쓰고, 드라이기를 쓰지 않아도 금방 말라서 전기도 아낄 수 있으니, 정말 너무 잘 한 일이에요~” 지구사랑과 환경보호에 급격한 관심을 보이며 실천으로까지 옮긴 딸을 보면서 나도 조금씩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맘카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방법을 보며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읽으면서 나는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살펴 보게 되었다. 침실,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냉장고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 밖에도 온통 플라스틱으로 덮인 세상이었다. 이렇게 주변이 온통 플라스틱인데 나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없었다. 분리수거 요일에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재활용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종류가 섞이면 재활용이 안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었다. 인터넷으로 손뜨개 하는 법을 열심히 보고, 아크릴 수세미를 떠서 아주 뿌듯해했는데...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수세미였다니... 세제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명목 뒤에 버려지는 수세미들은 다시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가 되어 쌓이게 되는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여닫는다. 밥 한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닐, 플라스틱 용품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 우리 집 주방에는 스테인리스 반찬통과 사기그릇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인가 가볍고 밀폐력이 좋은 플라스틱 반찬통이 주방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가볍고, 편리한 플라스틱은 소비자의 마음을 빼앗기에 아주 매력적인 제품들로 만들어졌고, 결국 2020년의 지구는 플라스틱 중독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다. 지구에서 만들었지만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없는 외계물질이 되어버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이 사회가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똑하게 사

용하고 최소한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을 때, 결론은 교육이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은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다고 했다. 교실에 쓰레기통이 한 개였다는 것이다. 중학교때는 캔, 종이, 일반쓰레기 정도로 3개는 분리배출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라서 놀랐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비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중년이 될 때까지 플라스틱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웠지만, 학술적인 이야기가 다였다. 그러나 이제는 유치원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계속해서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고 수거함에 넣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배워서 성인이 된다면 책에서 보았던 미래노플라시티 같은 마을이 많아지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읽던 중 플라스틱 AI재활용 기계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읽었다. 기계에 깨끗한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더러운 병은 기계가 다시 빨아낸다고 한다. 이 기계에 플라스틱 병을 넣는 것이 재미있고 포인트도 적립되니 많은 아이들이 휴일이면 부모님에게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가자고 조른다고 했다. 요즘은 학교 수업도 게임형식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은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즐거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배우고 학교, 마을, 가정 등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지구는 어느 한 단체나 나라만이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전 인류가 함께 노력할 때 파란 하늘과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상품포장지, 다 마신 물병이라 생각하고 본래의 목적을 다하면 그냥 쓰레기로 버린다. 또 꼼꼼하게 재활용품을 씻고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아깝고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 같다. 편하게 더 편하게를 외치며 일회용품들을 쓰고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에 수고를 들인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들, 비닐봉지들을 적절하게 분리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귀차니즘 때문이라고만 하기에는 솔직히 분리배출 할 때 어려움이 많다. 물병 하나만 보아도 병뚜껑과 뚜껑과 분리된 링 그리고 상표 띠까지 모두 따로 분리해야 하는데, 끈적이는 띠지를 떼어내고 뚜껑에 있는 링도 잘라서 분리하려면 여간 손이 가는 게 아니다. 그나마 상표비닐이 잘 벗겨지면 다행인데 어떤건 열심히 떼어내도 끈적한 본드가 남을 때도 있다. 깔끔하게 잘 벗겨지는 비닐로 본드없이 제작하고 플라스틱마다 종류가 쓰여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분리배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조원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거하고 다시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적절히 분리수거 되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지만 분리하기 쉽게 제작되고, 잘 분리수거할 때 돈이 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당장 해결해야하는 문제들

이 참 많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버섯 중에는 먹자마자 몸에 마비가 오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만 살 수 있는 버섯도 있지만, 독성이 잘 보이지 않아서 독버섯인 줄 모르고 계속 섭취하다가 나중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되는 버섯도 있다고 들었다. 플라스틱을 매일매일 사용하고 버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디 가서 쌓이고, 또는 태워지고, 묻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어마어마한 양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오는 것 같다. 플라스틱 남용은 내가 독버섯의 독에 노출되는 지도 모르고 조금씩 먹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지금 당장 재활용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내 삶에 크게 나빠질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오래전에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스위스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있는 캔을 판다는 내용을 보면서, “재미있는 발상이다, 이벤트용품으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공기를 사 먹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쓰레기 봉지들이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소각되며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들은 걸러내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걸러내지지가 않는다. 바다로 떠내려간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작게 잘려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생선들의 밥이 되고 그 생선을 사람이 먹는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하늘, 바다, 육지 모두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중에 신경 쓰자 라고 하기에 너무 늦었다. 지금 당장 실천하고 변화해야 하는 시간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가 있는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찾고, 생산자도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해야 할 때이다. 책을 읽으며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식과 힘을 얻었다. “나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변할까?”가 아닌 “나 하나라도 노력하면 세상은 변한다”라는 다짐으로 생활해 보려 한다. 또 내가 알게 된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주변 이웃들에게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줄 것이다.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할머니의 귀한 씨앗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

일반부 경기 안성시 공도읍 박지희

“광주엘 좀 다녀와야겠다. 갈 준비해라.”

광주외삼촌이 앓아누우셨다. 골골 팔십. 팔십을 문턱에 앞둔 큰외삼촌은 더 자주 아파지셨고, 엄마에게 전화를 거는 날이 많아졌다. 친정엄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보다도 큰오빠가 더 무서웠다고 했다. 무서웠던 큰오빠가 노인이 되니, 우레 같았던 그 호통도 물러지고 자꾸 환갑이 넘은 어린동생을 찾는 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외삼촌 전화의 시작은 아마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다. 내 눈꼬리가 뼈죽이 올라갔다. 큰외삼촌 자식들도 있는데, 굳이 또 어깨가 아픈 우리 엄마를 찾는 게 속상했다. 친정엄마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신음을 달고 살면서도, 큰외삼촌의 전화 한 통이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무나물이니 어묵볶음이니 이가 많은 외삼촌을 위한 무른 음식들을 준비했다.

외할머니는 ‘왜정 때’ 충주의 산골짜기로 시집을 갔다. 외할머니의 어머니는 장에 갔다가 왜놈들이 젊은 처자들을 잡아가서 몸쓸 짓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초경도 시작하지 않은 어린 딸을 얼굴도 모르는 건넌마을 노총각에게 시집보냈다. 시작부터 너무 서두른 탓이었을까. 외할아버지는 자주 아팠고 외할머니는 창창한 나이에 혼자가 됐다. 외할머니는 자식 여덟을 두었는데 위로 셋이 죽고, 다섯이 남았다. 그중 큰아들인 광주외삼촌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자주 아프곤 하였는데, 위로 셋을 보내고 난 뒤라 염려증이 커진 외할머니는 아들을 커다란 합지박에 담아 놓고는 옆에서 애를 지키며 발농사도 짓고 소 먹일 여물도 주고 했다.

『화성에서 만난 오래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은 우리 할머니 이야기였다. 책 속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외할머니말로 ‘거진 잡아’ 팔십이 넘는 노인이셨고, 어르신들의 토종 씨앗은 나이와는 반대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 땅 부쳐 먹어 자식들 다 키워 내보내고, 이제는 자식들 양식을 대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할머니들. 농사짓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바라지를 하게 되는 현실은, 씨앗을 대물림할 자식이 없는 우리 농업 현실의 안타까운 현주소였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작가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작가는 씨앗보다

소중한, 지혜로운 우리 농부들의 삶을 찾은 것 같았다.

책을 읽는 내내 외할머니 생각이 났다. 친정엄마는 농사가 싫어 도시로 도망 나왔지만, 음식 장사를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원가를 절약해볼 심산으로 땅을 빌려 또다시 농사를 지었다. 양파, 조선대파, 양배추, 고구마, 감자, 배추, 무, 가지....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채소들을 밭에서 만났다. 엄마는 종종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린아이가 된 투로 ‘파종은 언제 하면 돼?’, ‘엄마, 지금 심으면 돼?’하고 묻곤 하였는데, 10년이 넘게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해 같은 질문을 하는 엄마가 의문스럽기도 했다. 글 씨라고는 당신 이름만 쓸 줄 알았던 할머니는 엄마의 전화마다 묻지도 않은 대답까지 더하며 ‘안돼. 조금 더 있어야 돼.’하고 알려주곤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곳 땅 상황을 알고, 척-하고 대답해 주실까 궁금했었다.

엄마는 ‘친정에 몽땅 빼돌리냐,’는 아빠의 조롱 섞인 농담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음식을 만들었다. 큰 외삼촌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다는 (늘 이름은 없고, 전화로 한참을 설명하는) 김치국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이름 없는 음식을 만들었다.

겨울에는 콩을 쭈어다가 두부를 만들어서 물에 담가놓으면 살얼음이 얼어서 한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었지. 여름철에는 농사일로 바빠 도무지 콩을 쭈 여력이 안 되어서 장에서 가끔 몇 모씩 사서 먹곤 했는데, 다 먹지 못한 두부는 들기름에 노릇이 구워서 간장 항아리를 하나 맨들어 가지고 거기다 두부를 넣고 찐지처럼 먹었어. 그게 짜도 얼마나 맛있었던지...

친정엄마는 입맛을 한 번 다시고는 김치국을 설명한다. 꼭 푸르데콩이어야 그 맛이 제대로 나. 콩을 두부 만들 듯 쭈어서, 발발 끓는 김치국 위에 휘이- 하고 두루 듯 부어주면 몽글몽글 거품이 일어. 이것봐. 계란국 같지?

예전에는 계란이 귀해서 이 국을 계란국이라 생각하며 먹었다는 엄마. 엄마는 외할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줄 김치국을 만들고 서 있었던 것이었다.

잔달팥, 조선배추, 녹두, 조선오이, 쪽파, 조선아욱.... 할머니는 그저 아비 없는 내 새끼들 지키려고 꼬투리 열리면 잡아 말려 씨를 모았다.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아이들은 클테고, 더 커지는 아이들의 뱃구레를 채우려면 하나라도 더 심어야 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기어코 받아내었던 할머니의 씨앗들이 바로 작가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우리의 ‘오래된 씨앗’이었다.

책 속에 한 할머니는 옛날에는 콩에 약 한번 안 치고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농약을 하지 않으면 한 톨도 먹을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기후변화로 전에 없던 벌레가 많이 생기고, 농약을 하면서 천적 곤충들마저 없어져 벌레가 더 많은 것 같았다. 할머니는 옛날에는 벌레가 있어도 그냥 먹었다며, ‘여름 나면 소 한 필 먹는 썸’이라며 웃었다. 농약 대신 벌레를 먹어서 오래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할머니 말에 슬픈 웃음이 걸렸다. 책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씨앗들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지금은 다 커서 도시로 떠난 자식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친정엄마가 농사가 싫어 구로동의 나사공장에 여공으로 들어갔던 날, 외할머니는 엄마의 야밤도주를 도운 공범이었다. ‘니는 농사짓고 살지 마라’며 떠밀던 할머니를 엄마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다. 친정엄마의 기억 속에 아이들 먹이라 농사지으라 잠시도 느긋이 걷는 걸음이 없었다는 외할머니는, 눈물로 희뿌연 엄마의 눈 속에 점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의 귀한 씨앗이었다.

외할머니의 김치국을 싣고, 서둘러 광주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플라스틱을 알고 난 변했다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일반부 서울 양천구 목동 정미용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내 다리가 골절된 날부터 우리 집 분리배출 담당자는 남편이 되었다. 매주 수요일마다 퇴근 후에 투덜 투덜 쓰레기를 버린다. 한 주를 버리지 못하면, 우리 집은 쓰레기 섬이 아닌 쓰레기 하우스가 되는 느낌이다. 푸짐한 쓰레기가 일단 내 눈에서 치워지면, 나는 환경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난 재활용과 환경문제에 최소 관심 소비자였다.

소비자는 돈만 있다면,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다. 클릭 한 방으로 어떤 덩치의 물건이든 빠른 시간 안에 온전한 형태의 물건을 만질 수 있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기업들은 생산된 제품에 큰 포장을 안전하게 한다. 기업은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대량 생산을, 소비자는 기분 좋아지는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대량 소비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된다. 우리는 물질 소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복병을 만났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량 쓰레기가 원플러스 원처럼 연결되어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고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첨단 기술을 연구한 공학자에서 대안 에너지 연구소 소장으로 스스로의 직업을 360도 바뀌었다. 과격한 일부 환경론자와는 달리 저자는 공학도답게 플라스틱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팩트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이 석유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화학식으로 소개하면서, 이 화학구조에서 촉매제가 작용하여 단단한 중합체가 되고, 여러 가지 첨가제에 의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변신하여 생산자에 의해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70년 동안 사랑만 받던 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리며, 연소 시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아주 고약한 외계 물질이다. 인류가 자연계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창조는 했으나, 분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해하고 있다. 인간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속도와 플라스틱의 분해 속도를 계산하면, 책 제목처럼 지구에 플라

스틱만 남을 수밖에 없기에 천연 자원처럼 플라스틱을 순환시키는 방법, 즉, 재활용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1000% 동의했다.

재활용 방법을 효과별로 나타내면, 역피라미드 형태인데, 거부하기, 줄이기, 다시 쓰기, 재생, 새 활용, 재순환, 열적 폐기, 매립순서로 효율은 떨어지고, 환경 파괴가 크다. 최선의 재활용 방법은 거부하기, 줄이기이며, 최악의 방법은 소각과 매립이다. 개인이 담당하는 거부하기와 줄이기 방법은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역행하는 방식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교육이 확실히 되어야 참여도가 올라갈 수 있다. 재활용 전문업체는 재생, 새 활용, 재순환을 담당한다. 여기서도 개인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국가와 같은 공공기관은 개인과 재활용업체가 할 수 없는 폐기와 소각을 담당한다.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최소한 양을, 환경 보호 대책을 확실히 하고서 진행한다.

재활용의 주체별 단계를 읽으면서, 생산기업이 소비자와 재활용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재활용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치우는 사람이 따로 따로 각자 도생한다면, 생산자는 무조건 많이 만들거나, 못 만들게 되어 환경과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자가 제품생산, 포장, 운반을 담당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포장재를 최소한으로 하는 제도적 규제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지면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답에 근접할 것 같다. 일회용 용기 대신 병과 스테인리스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loop실험의 성공적인 결과와 응용이 기대가 되었다.

작가가 환경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인도의 대표적 재활용도시 다라비를 방문하고서라고 한다. 작은 고물상들이 점 조직처럼 촘촘하게 재활용에 참여하는 다라비는 슬럼가지만, 재활용률이 세계 1위로 60%에 근접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8%인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또한, 프레쉬스 플라스틱의 홈페이지에서는 플라스틱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 매력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환경을 해결하는 문제가 무조건 헌신적이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쉽고, 재미나며 유쾌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플라스틱에 대해 알면 알수록 지구의 자연 정화 능력이 괴물 같은 플라스틱의 파워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나의 무지함을 반성하면서 나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고 있다.

재활용 1차 분류자로서 나는 귀찮아서 안 했던 것. 찢기와 스티커 떼기부터 시작했다. 스티커 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를 내용물 위에 올려두는 것, 잘 떼어지도록 최소 크기로 할 것, 수용성의 바코드 스탬프 찍기 등을 생산자에게 건의하고 싶다. 대량판매와 반복 구매인 경우, 대표로 1개만 포장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예를 들면, 50개들이 생수 병을 1박스로 살 경우, 1개에만 포장재를 입히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바로 가능한 민짜병에 담는 식이

다. no brand 상품처럼 no 포장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중고책 전문매장처럼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돌려쓰는 방식도 널리 사용되면 환경과 가정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다. 재활용의 시작은 올바른 분류인데, 일정기간 재활용 자원 봉사자가 배출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분류를 지도하거나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도 재활용률을 올릴 수 있다.

운반용 플라스틱 포장재 대신 순환되는 공동 운송용 보관틀을 제안하고 싶다.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처럼 생산업체들이 협조하여 규격이 통일된 대·중·소 크기의 락앤락 박스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유해서 순환시키는 것이다. 당장에는 기존의 플라스틱제품 포장재보단 비싸지만, 수거와 세척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환경부담금이 적어 경제적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무늬만 재활용하는 동안 플라스틱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찬다고 해도 지구를 떠나는 것은 기술적으로 영화에서만 존재한다. 솔직히 인간은 아직은 지구에서만 생존할 수 있다. 소비자, 생산자, 정부로 구성된 3인 1조팀이 협조해서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듯이.



김 이야기

[바닷마을 인문학]

일반부 충북 청주시 용암동 김정현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나의 아버지, 나의 조부모가 나고 자란 곳이다.

전남 완도 동쪽 끝의 금당도는 해안을 따라 경관이 뛰어난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섬이지만 산행을 겸한 여행지로도 탁월하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산악절경에 매료되어, 귀어를 꿈꾸는 사람도 열에 한둘은 필히 있다. 빼어난 절경으로 눈은 호강할지 몰라도, 농사짓기 힘든 환경으로 험한 파도를 안고 바다에 의지해야 하는 삶의 무게는 가혹하다.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야 하는 고된 삶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 지겠다 자처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막연하지만 당연히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하며 살았다. 「바닷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닷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라고 소개된 '김준'의 '바닷마을 인문학' 책은 수백 수천의 도서가 진열되어 있는 서점에서 나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 온 식구가 누워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께 들었던 섬마을 이야기. 섬을 떠나 물에서 살던 아버지에게는 꿈에서도 가고픈 그리운 고향, 젊은 어머니에게는 생소한 바닷일과 고된 노동이었지만 신혼의 달콤함이 녹아있는 섬, 나에게서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기억은 감정과 함께 할 때 영원한 생명력을 얻어, 언제든 나를 영영 울며 어쩔 줄 몰라하는 9살 꼬맹이로 만들어준다. 1992년도 여름.

친척 언니 오빠들의 웃음과 나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친가 친척들 모두 여름휴가 차 할머니 댁에 갔던 날이다. 선착장에서 내려 줄 지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땀별이 내리쬐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천방지축 어린 나에게서는 형벌과도 같았다. 우거진 풀 숲 옆 잘린 등치위로 폴짝 뛰어 올라 일탈을 꿈꿨으나, 아뿔사!

그것이 소꿉친 줄 어찌 알았겠는가. 소가 일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것은, 뜨끈하고 질척한 느낌과 동시에 금방 발목까지 차올랐다.

친척 언니 오빠들의 놀림과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진창이 된 신발로 엉엉 울며 할머니 집까지 갔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 같다.

이처럼 나에게 금당도의 기억은 강렬하게 남아 있다. 한여름 뜨거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던 바다. 송골송골 흐르던 땀을 시원하게 식혀주던 짭조름한 내음을 가득 품은 바닷바람. 건잡을 수 없는 불길로 온 세상을 태우던 불디불은 까치놀. 그간 아끼고 숨겨둔 왕사탕을 하나씩 내어주셨던 할머니처럼, 그날의 금당도는 귀하게 품고 있던 전복이며 해삼, 물고기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하지만 섬 생활이 어디그리 푹푹하고 녹록하기만 하겠는가. 농사지을 땅은 부족하고 척박하여 밭농사는 지어도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고구마, 보리타작으로는 생계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 값이 좋아 김양식이 가장 큰 소득원이던 것은 1960년~1970년대 시절이다. 지금은 흔해져 식탁 위의 결가지 반찬 역할로 전락해버렸지만, 그 당시 김 농사를 짓는 어민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 완도김은 전량 일본 수출로 호황을 이루었다. “완도에 살고 있는 개(犬)는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때의 부촌마을을 짐작할 뿐이다. 김을 판 돈은 자식들 학비며, 시집 장가보내는 귀한 소득원이었다. 김 양식을 하는 앞바다는 마을 공동체이자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네들의 삶. 그 자체였다. 기존 바다를 나누어 농사를 짓되, 아들을 낳으면 김발(김이 달라붙는 틀)을 한 줄 더 주었고, 딸을 낳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것을 염두 해 지급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바다와 사람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수 세대를 거쳐 지켜진 그들만의 신념이자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강산이 네 다섯 번 바뀔 지금의 바다마을은 찬란했던 그 시절을 고이 품고 사람과 함께 참으로 많이도 변했다. 바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한다. 바다는 제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이라 하지만, 인간은 더 좋은 것을 내어 달라 한다.

질 좋은 원초 생산과 확보를 위해 일부 김 양식어민들이 활성처리를 하기 시작했다. 해수의 흐름이 좋고 조류가 강한 곳은 덜하지만 조류가 약한 곳의 김발에는 파래나 매생이 등 규조류가 함께 자라는 것이 열에 여덟이나 아홉이다. 김의 성장을 방해하고, 갯병이 발생하여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제거해야 하는데, 재래식 김 양식의 경우 이물질들을 손으로 솟아냈다. 농업과 비교하면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뽑는 것과 같은 이치다. 농업 생산량의 비약적 발달에 농약의 힘이 크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농업에서 농약을 뿌려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듯, 김 양식에서도 활성처리 일명 산처리(酸處理)라는 것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준에 적합한 유기산(有機酸, 주로 구연산)을 희석해 뿌려 김발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1994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무기산(無機酸, 주로 염산)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김 양식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무기산 한 통이면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 가능한 작업을 유기산으로

는 곱절의 가격, 시간, 노동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가 미비하다. 그러니 단속을 피해 새벽이나 야음을 타 몰래 무기산으로 작업하기도 한다. 흰한 대낮에도 위험한 바다 일을 어둠 속에서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어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 적절한 보완책 없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단속 기관 입장에서는 최종 생산된 김에 염산이나 염산으로 인해 생성된 유독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염산이 섞인 바닷물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려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된 염산이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효율성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허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수산물, 해조류의 경우 어획(채취)-유통-소비의 단계를 거쳐 특별한 가공 없이 자연 그대로의 낱것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농업에 비해 생소한 어업의 단계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렇다. 빈번하게 식탁에 오르는 김에 무기산 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 거리를 믿고 소비하길 원한다.

지속적인 어민들의 참여와 협조, 합리적인 가격과 고효율·친환경적인 활성처리제 개발, 파래나 규조류가 약간 섞인 제품일지라도 안전한 식품에 대한 착한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람과 바다가 오래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후세에게 언제나 기꺼이 돌아가 터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2020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발행처 환경부

세종특별자치도 도움6로 11

044-201-6418

<http://www.me.go.kr>

편집처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64길 한빛빌딩 지층

02-571-1195

www.kea1981.or.kr

발행일 2020년 12월

2018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bookcontest.or.kr>

※본 작품집 원문은 위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



2020 우수환경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환경부